

통권 제86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2012 겨울들살이 후기/34
신규조합원소개_루다네/39
신규조합원소개_유채네/40
신규조합원 독후감/42
편집후기/55

2012.3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톨 레 랑 스(tolerance)

나와 남 사이의 관계 또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한다.

이화정(해바라기 문영, 씩씩한 영윤 엄마)

얼마전 양파키우기에서 환승엄마의 진행으로 MBTI를 통한 자기자신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의 성향(성격)을 16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는 MBTI검사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고 한다.

나의 성격유형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선호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ENFJ'이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며 정열적이며 활동적으로 자기외부에 주의집중을 하는 외향형(E)이고, 정보를 인식할 때는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직관형(N)이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감정형(F)이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판단형(J)이다.

이 MBTI검사는 함께 살고 있는 문영아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문영아빠는 나와 많은 부분 비슷하고 일상에서 채택하는 생활양식의 부분이 다른 걸로 나타난다. 목적과 방향은 변화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생활양식을 가진 인식형(P)이다. 모임의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시간을 분할해가며 준비하는 나에 반해 문영아빠는 좀 늦어도 큰일 나지 않는다고 느긋하게 준비하고, 집안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정도면 괜찮지 하고 여유를 부려서 결과적으로 답답해하는 내가 하게 만들어버리는 등 일정과 시간, 정리정돈에 느긋한 편이다. 가끔 이런 문영아빠를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한데, 반대로 문영아빠는 조급해하는 나를 보고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러한 MBTI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헤어진 얼마 후 다시 만나 얘기를 해보면 각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고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 즉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존중할' 수 있고 더불어 '존중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람관계가 긍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나는 인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얼마전 ‘날아라 펭귄’이라는 영화를 보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주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장애, HIV감염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닌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타인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 되돌아 보건데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차별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내모습이 보인다.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일하는 곳에 속한 이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

올해는 좀 더 인권친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 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싶다. 좀 더 인권친화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개인적 다짐과 함께, 터전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다름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삶의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보탠다. 인권친화적 이해와 실천이 더욱 더 충만해질 터전을 위해 모든 식구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라본다. 

씩씩한 어린이집 2012년 3월 교육계획

정현주(씩씩한, 아침)

- 주제 : 새로운 선생님,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봄 지내기
- 세시와 절기 : 경칩. 춘분
- 새노래 : 씨감자, 절기노래
감장,노란,하얀,젓빛토끼

씨감자

이원수 시, 백창우 곡

감자 씨는 목은 감자,
칼로 썰어 심는다
토막토막 자른 자리
재를 묻혀 심는다

밭 가득 심고 나면
날 저물어 달밤
감자는 아픈 몸
흙을 덮고 자네

오다가 돌아 보면
흰한 발골에
달빛이 내려와서
입 맞춰 주고 있네

절기 노래

따뜻한 봄 시작되는 입~춘
얼음 녹고 새싹 트는 우~수
겨울잠에 깨어나는 경~칩
낮과 밤의 길이 같은 춘~분

감장토끼,노란토끼,하얀토끼,젓빛토끼

권정생 시 /백창우곡

감장 토끼가 노란 토끼를 활아 주고
하얀 토끼가 젓빛 토끼한테 기대고 자고

토끼는 빛깔이 달라도 서로 아끼고
토끼는 눈빛이 달라도 나란히 살고
토끼는 모두모두 예쁘다 그러고
하늘처럼 하늘처럼 하늘처럼 푸르게 산다

■ 교사회 일정

출근 시간

- 07:30 햇살(도담방)
- 08:30 피터팬(가람방),아침
- 08:40 나비
- 09:00 체리(마루방)
- 10:00 벚꽃(아라방)

교육 및 회의

- 7(수) 대구지역 대표교사모임
중앙로 뜨라래/5시/ 아침
- 10(토) 법인 총회
백범 김구 기념관/3시~6시/ 아침
- 13(화) 지역대표자 모임
공공교 사무국 /2시~8시/ 아침
- 23(금) 교사 간회의
- 27(토) 현장학교 교육 실제 과정
공공교 사무국/ 10시~6시/ 체리

■ 전달사항

신규등원

- 5(월) 도담방 : 김소현, 홍서연(4세,여)
 - 8(목) 가람방 : 송준서(6세, 남)
 - 12(월) 마루방 : 이하람(6세, 남)
가람방 : 이루다(5세, 여)
- 바구니 정리와 이불 세탁, 여벌 옷 확인 바랍니다.
비오는 날도 나들이 갑니다. 우산 챙겨 보내주세요.

씩씩한 3월 활동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삼일절	2 기차산 (단기모듬)	3 토요근무 (나비/체리)
2주	5 차모듬 왕놀이터	6 산딸기언덕	7 (전체모듬) 꿀통옆길 텃밭가꾸기	8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9 헬스산 안혜승 생일 (단기모듬)	10
3주	12 차모듬 썰매산 잔디썰매	13 화요시장 나들이	4 (전체모듬) 요리활동	5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16 도토리길 (단기모듬)	17 토요근무 (나비/벚꽃)
4주	19 차모듬 증심사	20 방모듬 매호공원	21 (전체모듬) 화훼단지 꽃사러가기 화단꾸미기	22 (대동놀이) 연령별모임	23 연못가나들이 ★김민소생일 (단기모듬)	24
5주	26 차모듬 건강공원	27 화요시장 나들이	28 (전체 모듬) 솔밭길 김현동 생일	29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30 등산길 (단기모듬)	31 토요근무 (나비/햇살)

※소방, 안전, 기본 생활, 먹거리 교육은 아이들의 흐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씩씩한 어린이집

2011년 되돌아보기와 2012년의 바람

정현주(씩씩한, 아침)

한해를 돌아보니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조합원들의 잦은 교육 아마활동으로 공동육아의 힘을 보여 주었던 해였고, 교사의 상황에 전반적인 흐름을 맞추어 가다보니 아이들은 어떻게든 적응한다는 말이 유난히 슬프게 느껴진 한 해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끄는 대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채 수동적으로 따라 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를 줄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겠고 한 해 동안 큰 탈 없이 잘 자라준 쉿쉿이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자유놀이시간

아마랑 일찍 헤어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아이가 하는 말을 많이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찍 출근하면 걸레 닦고, 1,2층 환기와 발판 정리등을 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한다든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읽어 주는 것이 배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아이의 감정과 요구를 배려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으면 한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접기를 한 것을 쉽게 버리는 종이함에 넣는다. 아이들이 활동한 결과를 잘 정리해 주면 좋겠고

파일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쓰는 미술 재료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심성이 길러지기도 한다. 꾸미는 종이로 광고지를 준 것이 반성이 된다. 아이들의 미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줘야 하겠고 예쁜 포장지나 우유곽, 상자를 이용한 골판지, 면이 넓은 크레용이나 색연필 등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테이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풀로 붙일 수 있는 것 까지 테이프로 도배하다시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감을 이용해 습식 수채화도 함께 하면 좋겠다.(자유놀이 시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종류의 블록은 그렇지 않은데 반해 남자아이들에게서 샅블력을 차지하기위한 다툼이나 만든 작품을 그대로 유지하기위한 분쟁이 반복되었다. 샅블력은 만지면 차가운 느낌이 든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어 모둠에서 함께 샅블력에 대해 의논한 후 치우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치워보았다. 그 후 남자 아이들의 분쟁이 줄어들었고 잘 놀지 않던 우유곽 블록을 전보다 자주가져 놀고 있고 특별히 샅블력을 찾는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놀다보면 크게 부

덧힐 일이 없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전에 모래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겠다. 해가 길어지면 연못가까지 오후간식을 먹고 나갈 수 있겠다. 모래 놀이터나 텃밭은 한계가 있으니, 늦게 퇴근하는 교사가 연못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도 좋겠다. 실외 교사 두 명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고 연못가 나들이를 가는 아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겠다.

신발장위에 메모판을 옮겨 연못가 나들이 인원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아마들의 투악 의뢰서 작성도 수월하겠다.

여는 모듬

	월	화	수	목	금
2012	방모듬 차모듬	방모듬 각방 나들이	전체모듬 전체나 들이	전체모듬 대동놀이 장애통합활동 (선화 어린이집)	방모듬 전체 달기 모듬

열기 모듬 시작이 늦어져 나들이 출발이 늦어지고 아이들의 등원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모듬 진행은 돌아가며 교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9시 50분에 모듬 진행교사가 먼저 모듬방에 모인 아이들과 손놀이를 시작으로 이 달의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다.

10분간의 전이시간을 통해 자유놀이 마무리와 정리정돈을 마치고 10시가 되면 모두가 모듬을 시작 한다.

(아마들도 9시50분 까지 아이들이 등원해서 아이가 하루 흐름의 시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날적이를 이용하거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등원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반기 전체 모듬은 월요일- 수요일(전체나

들이, 대동 놀이) -금요일 오전과 오후 달기 / **하반기**에는 수요일 대동놀이 후 전체 나들이를 가니 점심시간에 맞춰 터전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서 -수(전체나들이)- 목(대동놀이) 금요일 오후 달기모듬으로 진행 하였다.

월요일 차모듬시간에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는 아이와 아이간, 교사와 아이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 올해는 각 방에서 오전 차 모듬을 가지고 터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체 나들이 장소를 정하여 각 방에서 모듬이 정리되는 대로 나들이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월요일은 주말을 지내고 들떠 있는 아이들의 에너지 흐름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연못가가 적당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아졌다.

올해는

월요일 - 차모듬 전체 나들이

화요일 - 각 방별 모듬후 각방 나들이

수요일 - 전체 모듬과 전체나들이

목요일 - 대동놀이 후 연령별모임(4월부터 7세 장애통합활동 진행)

금요일- 각 방 모듬과 전체 나들이/오후달기 모듬(전체모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들이

나들이장소를 정할 때 아이들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산 나들이보다 놀이터를 주로 가게 되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전체가 손을 들어 의견을 수렴해서 매일 매일 나들이 장소를 정하다 보니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3월에는 한 주 또는 한 달의 나들이 장소를 미리정해 놓고 가기로 했다. 새로 온 교사나 새로 온 아이들이 나들이 장소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3월 나들이를 천을산에

있는 다양한 장소로 가보려 한다.

나들이를 정해서 갈 때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놀이흐름(가마솥 밥하기, 새 모이 주기 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동적일 수 있음에 대한 여지는 두기로 한다.

나들이 시에는 신규교사와 신규아이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아이들에게 탈부착이 편한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나들이장소 출발 전 후에 인원 파악에 유의하기로 한다.

나들이 갈 때 교사가 항상 아이들보다 앞서서 가고, 뒤에 교사가 오는 것이 확인되면 앞의 교사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선두교사와 후미교사간의 적절한 거리 유지로 전체의 흐름이 원활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되도록 서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점심

모두가 함께 1층에서 식사를 했고 작년 이어 올해도 개인차에 따라 밥 먹는 속도는 다르지만 편식 심한 아이들 없이 잔반을 남기지 않아 잔반 그릇이 필요 없는 날이 많다. 잔반 그릇이 비어 있는 날은 먼저 식사 마친 아이가 ‘아직도 반찬을 아무도 안남겼다’고 뿌듯해하며 이야기 할 만큼 모두들 잘 먹고 잘 놀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생선 가시가 있을 때 상위에 가시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잔반 그릇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 들어 먹어 보기로 했다.

노후 된 코렐 그릇이 자주 깨지는 것을 계기로 국그릇은 점차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가고 있고 식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더 편할 줄 알았으나 어린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밥을 뜨기가 어렵고 국그릇에 가려 반찬이 잘 보이지 않는 아쉬

움이 있었다. 또 식판이 가지는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3절 반찬 접시와 밥그릇 국그릇을 다시 사용해 보기로 했다.

(식판으로 교체하기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체 1년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은 낭비라는 우려가 들어 이후에는 교사회에서 다른 터전의 사용 사례나 경험을 취합한 후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모둠방에 책상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식사 시에는 책상이 부족하고 4세 아이들의 키높이에는 맞지 않아 책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식사 후 2층, 바깥, 양치질, 식사마무리 등 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낮잠

낮잠 전에 놀이감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은 감이 있어 1시 15분에 미리 예령을 주어 아이들이 놀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두 함께 정리 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방 3방은 인원이 늘어나 개인 요를 모두 사용하기는 복잡한 감이 있어 공동 요를 사용하면 공간의 여유가 좀 더 생길 것 같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불을 펴고 깎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작년 7세들이 잠이 들까봐 몸쉬기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간식시간에 책상 밑에서 잠을 자는 등 오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한 감이 있었다. 7세 아이들에게도 낮잠은 필요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은 몸 쉬기를 한 후 2층 거실 공간을 조용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간식

상반기에는 낮잠에서 깨어 나는 시간과 간식 시간의 간격을 두기 위해 4시 30분에 간식을 먹었다. 낮잠 시간이 당겨졌으니 달기 모듬이 없는 날에는 4시 10분에 간식 먹고, 앞으로 낮이 길어지니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놀고 싶은 아이와 아мага 와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늦게 잠자는 아이들은 그대로 배려해 주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살이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얻어간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 때 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이 놀이에 몰입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간식 후 연못가, 모래밭과 텃밭, 실내(1층)로 놀이 공간을 나누어 아이들이 실내에서 집중할 때이면 안에서의 놀이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지켜보며 밖에서의 활동을 고민해야겠다.

오전에 전체로 나들이를 나간다면, 오후에는 각자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해서 놀 수 있는 대로 놀려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시절기 중심으로 교육활동은 절기에 할 수 있는 놀이와 미술활동, 수작업(손뜨개,장명루, 바느질, 직조등), 자연물을 이용한 표현 활동, 신체표현 활동을 세시와 절기에 맞게 이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오후살이로 제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자유놀이시간에 함께 할 수도 있다. (자유롭게 등 하원 하므로) 큰 틀 속에서 작은 흐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 무언가

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같이 나누어서 하길 바란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교사들이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교사들이 나누어 하는 것보다, 추운 날씨에 필요해서 목도리 뜨기를 했고, 마카로니를 부조 받아서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연스런 흐름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요구와 관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찰을 민감하게 해야 하겠다.

새 모이주기와 같은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한다면 조합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예: 목공)을 고민 하면 좋겠고, 돛자리를 펴고 먹을 것을 가져가서 낮잠도 자고 하루 내내 놀 수 있는 놀이를 교사 주도로 인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놀이로 이어지는 활동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문화 나들이

앤서니 브라운 작품전, 태극 문화전 2번으로는 문화 나들이의 횟수가 적었다는 생각을 했으나 자는 모듬에서 아가들의 그림자 인형극 반쪽이와 앵콜 공연 돌아 온 반쪽이, 교사회가 준비한 인형극 귀 짧은 토끼, 아가들과 교사회가 준비한 음악회는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내에서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다는 생각으로 전환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량을 대여해서 이동을 하는 문화나들이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로 제한하고, 좋은 작품이 있을 경우 더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두면 좋겠다.

우리 지역 시지 가까이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멀리 있는 자원 잊지 말고 챙겨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도 좋겠지만 우리

공간으로 초대해서 아이들과 아마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면 좋겠다.

아마들과 교사회가 준비한 작은 음악회나 인형극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조합내에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우리지역 내 시지에 있는 자원(주노아트, 도서관)들도 이용하면 좋겠다.

여태까지의 문화 나들이는 우리가 객이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연을 해봤으면 한다. 은탑 경로당이나 화요시장 놀이터에 나들이를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씩씩한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단오 떡 만들어서 나누는 것으로 지역과 연계가 되었는데 새로운 나눌 거리가 있어 우리터전 식구들 만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조합원들과 연계해서 문화 나들이를 가는 것에 대해 방모임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연령별 모임

통합방의 아쉬움을 보완하기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연령별 모임을 가졌는데 연령별 발달 특성과 연령별로 느껴지는 신체적인 속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같은 연령이 함께 있을 때 통합방과는 다른 놀이가 확장 되는 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요구를 모아 그날 하루는 같은 연령끼리 하고 싶은 대로 나들이와 놀이를 하는 날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고 연령별 모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기 위해 3월부터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령별 모임 담당 교사: 7세-벚꽃/ 6세-체리/ 5세-피터팬/ 4세-햇살(상반기)

장애통합 활동

2011년 3월 24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장애 통합 활동이 상반기 동안 7회기가 진행되었고

통합 활동은 천을산과 자연과학고등학교, 월드컵 경기장 내 스포츠체험관 나들이를 주로 했고, 씩씩한 어린이집 아이들은 선화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두 기관 교사들이 모두 초반의 아이들의 서먹한 관계가 염려 했던 것에 비해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해 많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했다.

상반기 장애 통합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장애 통합 활동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와 7세 6명이 각 방에 2명씩 나누어져 있어 7세들의 놀이가 확장되기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선화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과자집 만들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통합 활동은 각자 즐거웠던 활동이긴 했으나 방학을 포함하여 두 달 여간 만나지 못하기도 해서인지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 보다는 서먹해 하는 모습이어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이어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후 맑은 가을 날씨와 함께 씩씩한 어린이집 주변의 산과 연못가, 산딸기언덕, 건강공원에서 통합나들이가 이어졌고 적극적인 상호 작용은 하지 않으나 선화 친구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씩씩한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통합 활동의 마무리로 선화 어린이집 재롱잔치에서 참여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으로 재롱잔치를 축하하는 것으로

장애 통합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2012년 장애통합활동 계획

대상 - 7세(천을산에 올 경우 씩씩한은 전체 활동으로도 가능)

선화 아이 9명

교사 5명

씩씩한 아이 13명

교사 2명(7세 담당교사 벚꽃/아침)

진행 - 1주씩 선화와 씩씩한 교사회가 번갈아 진행

기간 - 4월~11월(방학없이 격 주로 진행)

12월 평가

내용 - 생태

(교육계획 각 터전에서 8회분 수립하여 공유하기)

텃밭활동

상반기 봄부터 텃밭에 심은 감자, 고추, 방울 토마토, 토마토, 호박, 가지, 오이, 옥수수, 토란은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 여름 내내 반찬거리와 간식거리를 마련해주어 급식비 절감과 아파들과도 고추나 상추로 넉넉함 나눌 수 있도록 한 일등 공신 이었다. 하반기에는 해바라기와 목화를 수확할 수 있었고 해바라기씨를 텃밭쪽 베란다에 매달아 두었더니 매일 새들이 와서 물고 가는데 새가 오면 놀랄까봐 아이들이 현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수확한 열매를 새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씀을 볼 때면 생활속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 같다. 배추는 시중에서 구입한 배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포기가 크고 알이 차서 아이들에게 한 아름이나되는 배추를 힘겹지만 기꺼운 표정으로 수확해서 무와 함께 김장해서 매일 맛나게 먹고 있다.

먹거리 이외에도 애벌레와 달팽이, 나비, 메뚜기등 곤충들을 잡아 놓고 관찰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했다. 모든 작물들을 수확한 지금은 모래 놀이터와 더불어 마음껏 뛰어놀며 주위에 늘려있는 넉넉한 자연물로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놀이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시 절기를 기준으로 하여 김을 매고 벼와 마늘, 양파도 심어 보는 것처럼 더 관심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더 부지런히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고 놀이가 확장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야겠다.

요리활동

1월 만두빚기

군만두, 찢만두 등의 요리방법과 고기만두, 김치만두 등의 속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만두의 이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김치고기만두를 만들어 보았다. 고사리같은 손에 만두피를 올리고 계란 물을 묻혀 만두 속을 얹은 다음 반달모양도 만들고 포크로 예쁜 무늬도 넣어 만두를 빚었다. 직접 만든 만두라서 더 맛나다고 아이들 모두 맛있게 먹었다.

2월 강정만들기

조청을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인 다음 설탕을 넣어 녹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튀겨온 튀밥을 넣어 섞어 준 후에 큰 쟁반에 담아 밀대로 밀기도 하고 손으로 꼭꼭 누르기도 하여 모양을 만들었다. 칼로 자르기가 힘들어 손으로 동글동글 말아 그 자리에서 직접 먹어보기도 했다. 달짝지근한 강정을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

3월 꿀마전

마에 들어있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위를 보호해준다는 설명을 해주며 아이들에게 토막 낸 마를 맛보여주었다. 강판에 마를 갈아

서 밀가루와 소금을 섞은 다음 굽는 과정이 마지막이었다. 잠투정을 하는 꽃마리방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쥐어주고 큰 형들에게도 하나씩 주었는데 양이 너무 적다고 투정을 부리며 집에가서 엄마하고도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했다. 꿀을 찍어먹는 달콤한 마전을 너무 좋아했다.

화전

chap쌀만 사용하면 너무 질어지므로 멍쌀과 섞어 익반죽을 하고, 화전이지만 매화꽃 말고도 대추, 쪽과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예쁜 모양을 장식하고 구워 꿀을 발라 먹었다.

4월 쪽죽케이크

아이들이 직접 삶은 쪽과 불린 쌀을 방앗간에서 찼어왔다. 체에 쳐져 내려온 가루가 부드러운지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 케이크 용기에 쪽가루를 넣은 다음 고명을 얹어서 마무리 했다. 완성된 컵케이크는 물이 좀 부족했는지 텁텁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미자차와 함께 맛있게 잘 먹어주었다.

5월 아카시꽃튀김

직접 따온 꽃에 밀가루를 살살 뿌린 다음, 밀가루 반죽을 입힌 아카시꽃이 기름에 들어가는 순간 꽃잎들이 활짝 펼쳐지는 모습이 무척이나 예뻐다. 꽃 속에 있는 꿀의 단 맛도 느껴보고, 금방 튀겨낸 바삭바삭함과 아카시꽃의 향기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맛있게 먹었다.

쪽개떡

꽃마리방 아이들은 만들어 놓은 반죽에 모양을 찍고, 나머지 방 아이들은 반죽도 직접 해서 쪽개떡을 만들었다. 떡살과 모양틀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과정을 가장 즐거워

했다. 떡을 찌 낸 다음 참기름을 발라 반질 반질한 쪽개떡을 내 주었더니 고소하고 쫄득하다며 오물오물 잘 먹었다. 이번에는 쪽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주고 있다.

6월 타래과

치자, 쪽, 오미자, 자색고구마를 넣어 네가지 색으로 만든 반죽을 아이들이 직접 밀대로 밀어 직사각형으로 자른 다음 칼집을 넣어 타래모양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반죽이 찢어질까봐 겁을 내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혼자서도 예쁘게 꼬인 타래모양을 잘 만들어 냈다. 만든 타래를 튀겨 시럽을 끼얹어 주었더니 바삭바삭하다며 즐거워했다.

매실효소

하루 전날 씻어 물기를 빼 둔 매실을 보여주며 매실음료가 몸에 좋은 이유와 효능들을 설명 해 주고 여러 모습으로 돌려 앉아 꼭지를 뺐다. 양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병에 담아 설탕을 넣을 때에는 달콤한 설탕을 조금씩 맛보느라 아이들이 즐거워 했다. 100일 후에 건더기를 덜어 다시 숙성시켜준다고 알려주었다.

7월 감자전

껍질을 깐 감자를 강판에 간 다음 수분을 제거했다. 건더기와 가라앉힌 녹말가루를 섞어 소금간을 해서 부쳐주었더니 노르스름하고 맛있다고 너무나 잘 먹었다. 처음에 같아서 맛보여준 생감자를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8월 복숭아 우유 아이스크림

복숭아 하나는 잘게 다지고 나머지 하나는 굵게 썰어서 우유와 꿀을 넣어 갈아주었다. 틀에 잘게 다진 복숭아를 먼저 넣고, 갈아둔 주스를 넣어 얼려두었다. 아이스크림을

얼려둔 다음날부터 비가오고 날씨가 우중충해지는 바람에 바로 맛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요리활동이었다.

9월 송편

추석이 끼어있는 달이라서 오색송편을 만들어 보았다. 송편의 모양이 반달이 이유는 '보름달은 다음날부터 점차 줄어들지만, 반들은 앞으로 더 크게 될 의미' 라고 가르쳐 주고, 반달모양 송편을 하나 꼭 만든 다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다. 호박모양, 조개모양, 나뭇잎 모양도 가르쳐 주었더니 잘 따라 만들었다.

10월 호박전

씨를 파낸 호박을 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끊어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잘 끊지 못하던 아이들도 몇 번 해보더니 요령이 생겼는지 서로 협동해가며 한명은 호박을 잡아주고 한명은 끊어내면서 번갈아가며 잘 했다. 끊어낸 호박은 바삭바삭하게 전을 구워 주었고, 씨는 두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려서 나들이때 먹게 간식으로 챙겨주었다.

11월 무말랭이

간단한 활동이라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들이 텃밭 무를 뽑아 썰어 두었다. 그런데 활동 이후 계속날씨가 좋지 않아서 말리는데 실패를 하였지만 무말랭이 반찬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다시 썰어서 말렸다. 다행히 날씨가 좋은 관계로 깨끗하게 잘 말려진 무말랭이를 완성했다.

유자청

유자 껍질은 채를 썰어두고, 과육은 씨앗을 뽑아낸 다음 설탕을 버무려 유리병에 담

아 두는 것으로 요리활동이 끝났다. 약 10일 쯤 후에 따뜻한 물에 태워서 먹자고 아이들과 약속 했다.

12월 김장하기

텃밭에서 키운 배추를 나들이 가기 전 한 포기씩 뽑아 나르고 다음날에는 마늘도 열심히 깎았다. 엄마들이 김장을 하고 남겨둔 작은 배추조각과 양념으로 아이들도 김장을 해 보았다. 커다란 쟁반에서 작업했지만 여러군데 고춧가루를 묻히고, 버무린 김치를 맛보는 신나는 작업이었다. 김장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준비 해 주어도 좋을 것 같다.

메주쭈기

7시간동안 삶은 콩을 아이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절구를 이용해 빻았다. 그리고 틀대용인 우유곽에 담아 꼭꼭 눌러 모양을 완성해두었다. 잘 말려 곰팡이를 띄운 다음 내년에 간장을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 할 계획이다.

팔죽

동짓날 붉은 팔죽을 먹어 나쁜 기운을 막고 건강해진다는 속설을 알려 준 다음 아이들과 함께 새알을 빻었다. 일찍 삶아둔 팔으로 앙금을 내어 준비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만 했다. 나들이 다녀온 후 큰 솥에 담은 팔죽을 방 안에 옮겨주었더니 양이 참 많이라며 신나했다. 예상외로 더 잘 먹어준 아이들이 많았다.

요리활동 평가

일 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인원이 조금 많아서 인지 일일이 좀 더 세심히 가르쳐 줄 수 없었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요리

들은 직접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조금 미안하게 생각되며....많이 사용하는 오미자를 구매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필요한 양 만큼의 효소를 직접 담을 수 없어 아쉬웠고, 그나마 유자차를 많이 만들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보낸 것 같다.

끝으로

새로운 아이들과 방구성, 새로운 교사회, 새로운 조합원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한 해, 작년이 교사회 중심으로 지냈다면, 아이들의 놀이 중심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보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조합원과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공동육아 자체가 확산되기 보다는 이념과 철학이 확산되어 가기 위한 교사회와 조합원들의 노력을 기원하며, 아이와 아이, 교사와 아이, 교사와 아마, 아이와 아나가 소통되는 관계맺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꽃마리방

2월 교육평가

이희연(씩씩한, 머루)

시간이 참 잘도 흐릅니다. 어느새 해가 바뀌고, 계절은 추운 겨울에서 봄을 그리는 때로, 꽃마리 아이들은 네 살 막내에서 다섯 살 형님이 되었습니다. 네 살끼리 모여 지내다 새 방으로 모인지 이제 열흘쯤 되었나요? 꽃마리들이 새로 온 동생들을 챙기고, 새로운 방에서도 잘 적응하는 걸 보면 신기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제가 지켜본 4개월, 이 짧은 순간에도 말이지요.

♣ 생활 이야기

1월 31일, 하선이네 집 마실과 그림자 인형극

하선이네 집으로 마실을 갔습니다. 승우, 차람이, 채희, 해바라기(채희 어머니)와 함께 10시 넘어 터전을 나섰습니다. 하선이네 집에 도착하니, 하선은 자고 있더군요. 아이들끼리 먼저 집안도 둘러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선이네 집에서 직접 만든 강정과 오미자차를 맛보며 놀았어요. 거실에 놓인 운동기구에서 네 명씩 올라가 몸을 덜덜덜 떨며 놀기도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오후 간식을 먹기 전에 교사들이 준비한 그림자 인형극을 하였습니다. ‘짧은 귀 토끼’를 했습니다. 그리 잘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하는 것만으로도 이리 반기고 좋아하는구나 싶었지요. 교사들이 또는 어른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2월 1일, 서영이 첫 등원

겨울의 찬 날씨를 이렇게도 표현해 보셨나요? 아침에 간식을 먹으며 날이 춥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규언이가 ‘팽귤이 이사를 갈 것 같은 날씨’라고 말했습니다. 하하, 참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서영이가 등원한 날입니다. 현민이 데리러 부모님이 오실 때 한두 번 봤는데 오늘 보니 또 새로웠습니다. 말도 곧잘 하고, 잘 놀았습니다. 오빠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잤습니다. 승우가 병원에 갈 때는 나와서 인사도 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겠지요? 잘 지내길 마음 모아 봅니다.

2월 3일, 밥상 노래

아침 열기 모듬을 할 때입니다. 2월 노래를 함께 불러 보는데, 밥상도 불러 보았습니다. 노래 이야기하며 이참에 먹거리 이야기도 해야겠다 싶어 교사마다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이야기하니, 옆에 앉은 현동이가 ‘힘들어’, 그 말에 윤서, 환주도 같이 ‘힘들어.’라고 하더군요. 아침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고 해?’하고 물으니 시훈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배!’ ‘어머니의 어머니는?’ ‘할매’ ‘그럼 할머니의 할머니는?’ ‘할무!’

2월 6일, 대보름 행사

점심을 먹고 대보름 행사를 보러 금호강 변으로 나왔습니다. 가자마자 달집에 소원쪽지를 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쭈쭈바(하선), 아이스크림(성희), 아이스크림, 쭈쭈(서영), 엄마, 아빠랑 놀게 해 주세요(승우) 등’ 소박하면서도 큰 바람들을 적었습니다.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재기차기, 투호 던지기, 연 날리기, 윷놀이 등을 하며 놀다 왔습니다. 차량아마로 곰돌이(승우 아버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2월 10일, 음악회

오후 간식을 먹고 연수 생일 잔치를 하기 전, 음악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독수리(상화 아버지)가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기타 공연과 함께 노래도 불러 주셨습니다. 연수 아버지와 아침도 함께 노래를 부르셨어요. 세 분이 함께 노래 부르시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리도 리코더 공연을 하셨어요.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열기 모듬에 했던 교사 풍물 공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한 번 더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

니다만, 두 달 가까이 연습하고 하는 공연이라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쉬워 또 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노래도 부르고, 마음을 나누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2월 13일, 서영이와 차람이

날씨가 추워 나들이를 가지 않고 터전에서 놀았습니다. 2층 꽃마리방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서영이가 음식을 차려서 쟁반에 담아 차람이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졸졸 따라 다니며 먹으라 했는데 차람이가 끝까지 피했고, 서영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먹으라 했는데 차람이가 안 먹어. 어영 엉엉~’ 서영이를 달래고 나서 보니, 차람이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 같이 달렸습니다. 둘이 얘기를 시켜 보려고 했는데, 서려고 하지 않아 얘기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차람이가 밥상을 차려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차람이에게 ‘서영이랑 같이 먹을게.’하고 돌아보면 서영이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차람이가 서영이에게 직접 ‘서영아, 먹어.’라고 얘기해도 외면했습니다. 차람이가 서너 번 권하자 서영이도 맘을 풀고 같이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이전에 서영이가 차람이를 보고 ‘언니가 해 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람이는 언니처럼 행동하는 서영이가 싫었는지(서영이는 차람이가 동생처럼 귀여웠나 봅니다) 서영이가 간식을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둘이 친구되기 참 힘들지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쉽지 않구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둘의 관계 잘 지켜봐 주세요.

2월 14일, 앞산마을학교로 간 긴나들이

아이들과 긴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려 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

하다가 결국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간식 가방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보니, 가기로 결정 내린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곰돌이가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11시 10분쯤 상인동 마을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공간에 계신 반디(교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지렁이 놀이와 개구리 놀이를 하며 공간에도 적응하고, 어색한 분위기도 바꾸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가서서인지 놀이하면서 잘 따라하고 공간을 빙빙 돌며 잘 놀았습니다. 12시쯤 점심을 먹었습니다. 나비가 정성스레 싸주신 점심 도시락과 아이들 간식도시락으로 넉넉히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비가 그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삼필산에 올라 아이들이 지은 요새도 보고, 월강수변공원 강둑길을 달리며 달리기 시합도 했습니다. 3시쯤 터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영이(기절), 하선이, 차람이가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잘 놀았습니다. 나들이 함께 가서서 많이 도와 주신 꿀벌(차람 어머니), 해바라기(채희 어머니), 곰돌이(승우 아버지, 운전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더욱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즐겁고 신났던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유채

방긋방긋 웃기만 할 줄 알았던 유채가 현관에서 내리 20분을 울었습니다. 8일부터 어머니와 함께 등원하다가 오늘 처음 혼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유채가 크게 우는 걸 듣고, 형님들이 와서 달래 주고 웃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웃으면서 유채도 기분을 풀었습니다. 점심이 콩나물밥이었는데 ‘남~남~’ 소리를 내며 먹더군요. 밥을 어찌나 잘 먹는지 ‘유채야, 신통방통하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유채가 똑같이 따라 해서 또 한참 웃었습니다.

♣ 마주 이야기

2.2.목 11:00, 양지꽃방

그림을 그리고 있던 누나들 사이에서 상화가 갑작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랑 바다에 갔다.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았다. 그런데 물고기가 깍~ 했다. (천진하게 웃으며)그래서 우리가 웃었다.”

실감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상화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2.3.금 11:40 꽃마리방

성희, 상화, 차람이가 소꿉놀이를 하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상화 :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자.

성희 : 그래

상화 : 지금 아빠는 TV 맥퀸 다운 받고 있다. 애기도 있지?

성희 : 없다고 하면 안 될까?

상화 : 아빠는 칼 갖고 있다. 토마토 자르려고. 어른들도 칼 갖고 있지?

성희 : 너는(차람) 키 큰 언니하고, 나는 키 큰 엄마하고, 너는(상화) 아빠한테이.

상화 : 아빠가 토마토 주스 만들고 있다.

차람 : 머루, 사탕 먹어. 크림 발랐는 거야. 그거 깨무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야.

조금 뒤 다시 와서,

차람 : 내가 맛있는 거 차렸다. 요건 주스고, 아직 먹으면 안 돼. 요건 빵이고 요건 사탕이야.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머루, 자.

2.7.화 점심 먹기 전, 1층 책방

소꿉놀이를 하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병원에 왔다는 설정으로 1층 책방에서 병원놀이를 했습니다. 환자는 저, 의사는 윤서, 다수의 간호사들로 승우, 차람, 상

화, 서영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승우 : 침 놓아 드릴게요.

윤서 : 느끼지 못하지만 병균이 있어요.

차람 : 느끼지만 못하지만 병균이 있어요.
책 읽어 드릴게요.

윤서 : 느끼지 못하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TV예요(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뜻인
듯).

큰 주사 드릴게요. 큰 주사 맞아야겠네요.
우리 같이 병원놀이할 거니까 어디 안 가
지?

머루 : 언제 집에 가나요?

윤서 : 무한 날 가야 돼요. 끝도 없이 있어
야 돼요. 작은 칼로 잘라 줄게요. 안 아프지
요?

(서영이에게) 약 좀 부탁해요. 2층에 가서 좋
은 약 좀 갖다 주세요.

서영 조금 뒤 손살같이 다녀와서, 꽃마리방
에 있는 소꿉놀이를 가져다 주며

서영 : 갖고 왔습니다.

2.9.목

꽃마리방에서 소꿉놀이하며 노는 중.

차람 : 머루, 요거는 딸기고 요거는 초콜렛
이고 요거는 젤리, 별모양 초콜릿이야.

머루 : 이야, 맛있겠다. 상화야, 같이 먹자.

차람 :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쟁반을 치우며
웃는데, 야릇한 미소... 약간 빠기는 듯한 표
정ㅋㅋ)

이거 하나는 초콜렛, 나눠 먹어.

승우 : (상화에게 샵 블록을 보여 주며) 야
야, 야야 나 로보트 잘 만들었다.

(상화가 만든 요리를 보고) 야야, 니 진짜 요
리사구나.

(차람에게) 야, 뭐하는 거야. 방에서 뭐하는
거야.

머루, 이거 다 먹으면 마이 먹으면 우리 어
제처럼 병원 가자. 머루가 배 터질라 캐서

음식 다 먹어서 주사 맞았다 컷어 이렇게
하자.

옆에 있던 차람,

차람 : 요거 구워서 먹어야 돼. 젤리, 초콜
릿, 요건 파가 아니라 어어.. 초콜렛 바나나
야. 머루, 배 안 아파?

머루 : 아니, 안 아파.

차람 : 그래도 병원 가자. 그래도 팔 아프니
까 병원 가야 돼.

2.10.금 9:40, 2층 거실

혜승 : (귀를 보더니 만지면서) 귀가 두껍다.

머루 : 응, 예전에 귀걸이 했었는데 이제 (구
멍이) 막혔어. 그래서 두꺼워졌어.

혜승 : 귀걸이 해야지. 그래야 시집가지. 시
집 가서 사랑살랑 해야지.

2.14.화 9:12, 1층

오빈이는 벚꽃 옆에, 윤서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터전에 있는 태권도 띠 이야기
를 하던 중,

윤서 : 아니야, 검은색이 더 높아.

오빈 : 검은색보다 더 높은 거 있다.

윤서 : 뭔데?

오빈 : 태권 브이.

윤서 : 태권브이는 언제나 나쁜 놈들을 이겼
다.

2.14.와 17:20 꽃마리방

서영,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기를 들더니

서영 : 왕자님!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요?
노랑 놀이터에 있어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더니,

서영 : 엄마 왕자님이야.

머루 : 엄마 왕자님이면... 아빠야?

서영 : 응.

2.15.수

꽃민소가 꽃마리방에 와서
 민소 : 머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머루 : 선생님. 그리고 머루는 다 컸다.
 민소 : 나는~ 남이 배고플 때~ 밥 주는 사람.
 꽃민소가 전해 준 무한 감동. 반성합니다.

2.17.금 4:50, 현관 앞

비닐에 싨 백설기(간식)을 보여 주며
 승우 : 우리 엄마 아플 때 줄 거야.
 옆에서 있던 상화,
 상화 : 나도 엄마한테 줄 거야.
 터전에 퍼진 호심~

2.21.화, 상화가 집에 갈 때

상화 어머니가 상화랑 집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엄마 : 머루 선생님 좋아?
 상화 : 좋아. 체리, 벚꽃, 보리 다 좋아.
 엄마 : 3월달에 머루 선생님 없는데 안 섭섭해?
 상화 : 안 섭섭해. 여자 둘이나 있는데.
 으하하하~

♣ 마무리

아침이 1년 총 평가를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내는 동안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입니다. 계단을 잘 오르내릴 정도로 다리에 힘이 생긴 것, 나들이 때 달리기 시합하면 예전보다 더 빨리 달려와 안기는 것, 이것이 제가 걸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이들 마음 속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스펙트럼에 햇빛을 비추면 찬란하게 흩어지는 빛의 색처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빛들이 만

들어낸 표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표정을 지으며, 그 표정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내어 이야기하는 아이들 모습이 제게도 참 신기했습니다. 마음이 자란다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지구별에 온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지구별에 온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요. 빛을 내는 모습 그대로 그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 길이 무엇이든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지금의 맑은 모습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로 남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맑은 영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아이들과 있으며 제 마음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일이 서투르고 막무가내여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터전 식구들과 아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

별꽃방

2월 교육평가

조윤정(씩씩한, 체리)

★ 방구성원

5세- 최영윤, 성도연, 김희영

6세- 김민소, 박찬종, 박주하, 박연수

7세- 신다안, 최지웅

자유와 나눔을 중시한다는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낸 한 학부모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도교육 체제 내에서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대안학교를 보내고 나니 자신과 아이의

관계가 본질로 돌아온 것 같아 행복하다는..... 대안학교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아이와의 관계가 본질로 돌아온 것 같아 행복하다는 부모의 고백은 듣는 사람의 가슴조차 설레게 합니다. 본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게 그런 것이겠지요. 부부, 친구, 연인, 형제, 이웃 등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게 맨얼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졸업, 입학으로 분주한 시절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전환점에서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걸음이라도 한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지점에 무사히 안착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는 달이라 그런지 더 짧게 느껴지는 2월입니다. 해바라기로 건너간 8세들과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쌓아갈 사랑스런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겨우내 뽀뽀 얼었던 땅에서도 무언가 꼬물꼬물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제 겨울도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려나 봅니다. 올 해는 유난히도 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는 봄이 얼른 와서 씩씩이들과 맘껏 누비고 다닐 생각을 하니 더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 때 쫘 터전에 와서 처음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시간에 쫓겨서 하루 하루를 살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올 해는 좀 더 준비된 교사회에서 준비된 교사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한해를 되짚어 보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해 봅니다.

★ 모둠과 나들이

상반기에는 월요일- 전체 모둠- 점심 식사 후- 방별 차 모듬을 하면서 주말이야기하기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오후 낮잠시간이 당겨지면서 오전에 차 모듬을 하였으나 주말이야기 나누기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확보 되지 못하고 시간상 오전 나들이와 겹쳐지면서 날씨 등의 이유로 나들을 가지 못하는 오전에만 진행하게 되었다.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는 아이와 아이 간, 교사와 아이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와 배려측면에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지고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더 잘 표현하는 아이마다의 개별성도 있어서 상반기동안 주말 지낸 일이나 마음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차 모듬을 부활하고 각 방에서 나누는 시간을 배려하여 전체 나들이 장소를 정하고 각 방에서 정리되는 대로 나들이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주말이야기 나누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가 잘 안되는 모습이었으나 점차 대화로 이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공감하여 토론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주말 이야기나누기가 소원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체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 꾸미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화요일 방별 모듬은 그날의 일정과 그날의 나들이, 방별 활동(긴 나들이나 요리활동 같은)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요일 전체 모듬에서는 모두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모두가 모여서 나누

는 시간인 만큼 자칫 주의집중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고 모둠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 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간들을 차츰 경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익혀가며 안정되어 갔으며 전체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말, 행동, 몸짓, 표정 등)이 점차 자연스럽게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요일에 대동놀이 후 전체 나들이 진행에 무리가 있어서 목요일에 대동놀이를 하고 자연스럽게 전체 모듬을 나눈 후 또래모임을 하니 무리 없이 금요일 단기 모듬 까지만 주에 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전체 모듬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방별 나들이와 연령별 나들이 외에 모두가 전체 나들이를 하여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 또래모임

통합방의 보완으로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또래 모임을 해 보았는데 같은 연령의 특성을 가진 또래끼리의 놀이가 확장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래아이들 끼리의 요구가 쉽게 모아져서 그날 하루는 같은 연령끼리 하고 싶은 대로 나들이와 활동 탐색 등을 하는 날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측면에서 긍정적인효과가 있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연령별 모임에서 놀이가 더욱 확장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주도면밀함과 들고 남이 요구될 것 같다.

★ 하루흐름과 자유선택활동

하반기 뜨개질과 직조(가방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과 개별적으로 놀이를 하는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아침 등원시간 부터

오전 간식시간 준비 전 시간과 점심식사 후 낮잠준비 전, 낮잠 후 간식시간 준비 전 시간에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은 아이마다 하루흐름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등원이 이른 아이와 늦은 아이, 잠에서 일찍 깨는 아이와 낮잠에서 늦게 깨는 아이, 또는 낮잠이 더 필요한 아이, 바깥놀이를 더 좋아하는 아이와 실내놀이를 더 좋아하는 아이 등 이는 또한 매일 매일 아이의 그날 리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시 절기와 텃밭활동

절기준비와 텃밭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아쉽고 세시 절기와 텃밭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시절기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텃밭활동을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과 세시 절기의 의미를 경험으로 익히고 알아가도록 하며 텃밭 가꾸기와 연계하여 바깥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문화나들이

작년 한해 문화나들이를 자주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절기와 생일 그리고 터전의 여러 행사들과 맞물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이에 하반기에는 터전 안에서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음악회나 인형극 등을 준비해 보았다.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틈나는 대로 교사회와 조합원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볼 계획이며 아이들이 주가 되어 경노당과 같은 이웃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전래동요를 들려주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번 누리과정연수에서 교육하는 주된 내

용이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과 상호작용, 신체운동과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영역이 교과목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 모든 영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맘껏 활동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생님이 친구 같아야 한다는 누리과정이 중점을 두는 사안은 지금 우리 터전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살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부모교육활동과 마실 문화와 같은 연계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교육을 들을 때는 뿌듯하기까지 했다. 다만 초등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성을 두어 편성된 인지적 학습 측면에서는 의견과 생각을 나누었으면 한다. 

열기 모듬때 터전내의 플라스틱 샵블럭 놀잇감을 치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프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아이들의 놀잇감으론 적당치 않다는 논의가 교사들간에 먼저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샵블럭을 만지면서 차갑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때 다툼과 갈등이 잦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다. 들이기는 쉬우나 내물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샵블럭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며칠 말미를 준 뒤 결국 터전의 다락방으로 치워졌다.

2월엔 찬중 찬홍 형제, 연수와 시훈의 생일이 있었다. 생일날엔 터전에서 직접 새알을 비벼 수수팔떡을 만들기도 하였고, 각각 각색의 생일카드 그리고 곱게 차려입은 아이과 가족들 축하객... 그야말로 잔치날이다. 아침 열기 모듬 때, 시훈의 생일 이야기를 하니 “나는 봄 데리고 와”한다. 자기생일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말이라. 규언은 “나는 겨울 데리고 와”한다. 작년 규언의 생일이 지나고 겨울이 왔었다. 아이들의 말이 참 귀엽고 예쁘다.

양지꽃방

2월 교육평가

백은주(씩씩한, 보리)

등근 보름달에 소원을 빌고, 봄비가 내려 농사가 시작되는 2월이다.

겨우내내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던 서당지 연못가로의 나들이는 날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짹짹 얼어붙었던 한겨울과는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나들이 길에 도롱뇽 알을 건져와서는 터전에서 부화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시훈이 얼었다 녹은 땅을 디디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연못가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 연못가로 내려갈 때는 빠질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여야겠다.

이달엔 요리활동도 많았다. 정월대보름날엔 직접 강정을 만들어 부름을 깨고, 모두 함께 팔현마을 대보름잔치에 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기원을 담아 소원지도 써 붙였다. 닭튀김 만들어서 점심 때 먹고 오이피클도 만들고 고구마 고르케에 떡꽃이까지 거기다 가마솥에 밥해먹고 누룽지도 굽어먹고... 이래저래 입이 즐거운 날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말속에도 먹을 것들이 등장하는데,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꽃민소가 점심을 먹다가 귀가 아프다고 하니 옆에 있던 오빈이 하는 말 “그럼 귀밝이술 먹어”라고 한다. 하

하 아이들의 재치가 참 재밌지 않은가. 그 나저나 걱정이 있는데 꽃민소는 점심을 먹다가 화장실에도 자주가고 그럴 때마다 물똥을 누곤 한다. 아이의 배를 만져보면 딱딱하고 차갑다. 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현민의 동생 서영은 터전에 와서 오빠와 같이 앉아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적음을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열감기를 앓아 며칠 터전에 오지 못했다. 천을산 기차산에 갔을 때에는 기차 타고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하는데 어찌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 그저 마음만 아플 뿐이다. 유채꽃처럼 환하게 잘 웃는 유채는 엄마 보고 싶다고 한차례 울더니 그 뒤에는 언니들의 이쁨도 많이 받고 아래위층 왔다갔다하며 잘 지내고 있는 듯하다. 하루는 유채가 점심을 먹고 난 뒤 양지꽃방에 올라와 언니 오빠들 틈에 섞여 놀다가 문밖으로 나가려 하니 엄마가 “유채야~~”하고 불렀다. 그때 방안에 있던 시훈이 “가고 싶은 데로 가게 놔주세요”한다. 순간 아이의 말에 뭔가 꽂히는 느낌이 있었다. ‘가고 싶은 데로 가게 놔 두라’ 터전의 하루흐름이 아이에게 이렇게 새겨져있구나! 그 자유로움에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또래끼리 지내는 날, 26개월밖에 안된 유채를 꽃마리방 아이들에게 “유채는 아직 어리니까 잘 데리고 놀아줘”라고 부탁했더니 성희는“아~~~주 어린 건 아니잖아”라고 말뚱 말뚱한 눈으로 말한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좀 잘 데리고 놀아줘. 진심으로 부탁해 애들아”

해바라기&씩씩한 졸업식도 있었고, 낮잠 자고 일어나 “작은음악회”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락 풍물도 들려주었고. 상화아빠의 기타연주에 맞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때부터~~~‘밥상’노래도 함께 부르고... 거창한 문화나들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고 아름다운 일들이 터전의 하루흐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우리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시 한편을 옮기며, 그간 함께 해온 터전의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였다

-안도현 ‘겨울 강가에서’- ❧

제비꽃방

2011년 지낸 이야기

황태순(씩씩한, 벚꽃)

◆ 방구성원

이윤서, 김지호, 장문경, 김현동, 이시훈,
박찬홍, 안혜승, 최장민, 정수아

◆ 하루 리듬을 중심으로 돌아보기

4월 중순부터 시작한 공동육아의 생활은 각오하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보다 낫설었다. 원래라면 방구성이 이미 끝나고 나들이나 기본생활에서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었을 때였으나 처음 만나는 아이들은 길들지 않은 야생마-표현이 과격한가?-같았고, 익숙지 않은 환경에 몸과 마음을 적응시키는 데서 생기는 고단함과 터전에 텃세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의 기에 놀려(^_^;;) 상반기 때는 고생을 했던 것 같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결혼하면 터전 못나온 데이~ 어쩔래?”하는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싫은데 어찌지?”하는 말로 반항(?)하기가 다반사였다. 나는 나대로 그것이 서럽기만 했고...(부끄럽게 울기까지) 지금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의 애정 표현이고 오랜 선생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을 해결하는 아이들의 표현 방법이 아니었을까싶다.

평가인증과 그 전 후의 하루 흐름의 변화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들은 어른들이 필요해서 바꾸고 통과해야 했던 일이어서- 씩씩하게 잘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 주어 고맙기만 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렬하게 많은 것을 경험했던 2011년,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획할 순 없겠지만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 속에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2012년은 조금 더 알차게 나아가고 싶다.

- **아침 열기** : 초반에 차모듬을 하면서도 느낀 거였지만 자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어하는지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그러니 목소리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소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아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주 혹은 그 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하반기부터 많이 익숙해 진 것 같다. 사실을 전달하는 언어적 기술이 많이 늘었고, 들어주는 태도 또한 많이 발전한 한 해였다. 그만큼 아침 열기 시간과 차모듬 시간은 집중해서 하는 놀이와는 또 다른 아이들의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 자신 있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도 용기를 내어 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하반기 낮잠시간이 변경되면서 차모듬 시간을 통해 주말 보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그림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른 등원을 하는 제비꽃방이지만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아침열기 시간은 아이들의 등원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던 아쉬움이 있다.

- **나들이** :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나들이 장소가 많았기에 장소를 정하는 시간 또한 길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각 연령마다 힘이 있는 아이들의 발언에 의해 장소 결정이 되거나-손드는 데 눈치를 어찌나 보는지-혹은 자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많았다. 여름이 물놀이의 전성기였다면 가을은 산과 놀이터를 중심으로 다

냈고, 겨울은 가까운 비탈을 이용한 썰매놀이로 나들이를 즐겼다. 천을산, 놀이터 등 장소에 따라 놀이를 하는 주 도구-나무막대 등의 자연물과 놀이 시설-는 다르지만 제비꽃방은 방나들이에서는 특정 장소에서-개구리가 나온대거나 곤충이 있는 곳에서-한참을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다. 그러다 전체 나들이가 되면 싸움놀이, 전쟁놀이, 앓은뱅이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무리지어 몸으로 뛰어놀기를 많이 했다. 그와 함께 다같이 소나무 잎 집을 만들거나 목욕탕 놀이를 하는 등 놀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주위 환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확장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좀 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야겠다.

- **식사** : 주의를 여러 번 줘도 이야기를 나누느라 늦게 먹거나 질긴 음식 혹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맛 없어.먹기 싫어” 하며 먹지 않으려 하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던 번씩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왕성한 식욕을 보인 아이들이었다.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줄었으나 아이에 따라서는 여전히 식사시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 **낮잠** : 가장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잠자기 직전까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서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함께 몸쉬는 시간의 중요성-오후에 짜증을 내지 않고 잘 놀고, 우리가 먹은 것이 키가 크고 힘을 낼 수 있는 곳에 잘 가도록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 하루생활 속에서 고요함과 활발함의 조화가 필요하기에 익숙해지기까진 교사주도가 필

요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가장 멋진 경관을 사랑하는 제비꽃방이었지만 여름에는 선풍기를 비웃듯 켜는 듯이 무덤고, 겨울에는 바닥마저 데워지는데 미적미적 서늘하여 1층에서 자주 잠을 잤다. 누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한 두 편,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듣기만 하는 이야기 시간으로 정하여 몸쉬기 한 후 궁금한 그림이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책을 그대로 두었다. 그런 시간의 반복으로 잠잔 후에는 자연스럽게 읽어준 책을 다시 보거나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잠을 깨는 등 이 시간이 여유로워졌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도 일정 시간이 되면 날적이를 적는 동안 함께 책을 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 **자유놀이** : 초반에 새로 온 문경이는 샷블릭으로 무기를 만들어 살며시 다가와 “이거 파워레인저다 엔진포스다” 하며 만든 것을 보여주고 말을 잘하지 않는 수줍은 아이였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떨어져 지켜보며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터전이 익숙해지면서부터는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졌다. 물론 그것이 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고 아이마다 아직 힘들어 하는 개별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변화는 아이들의 기질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터전의 문화와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 온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함께 노는 것, 몰입을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힘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즐기며 몰입해서 오래도록 하고 있을 때를 보면 그 표정에서 경건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겉으로 보여 지는 아이들은 나무막대를 들고 우루루 뛰어다니며 여전히 캐릭터에 싸

움에 흥분을 하지만-남녀 구분없이- 뜨개질을 하고 직조를 하는 섬세함도 있고, 동생을 생각하여 잡기놀이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배려심과, 함께 역할을 정하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어른의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놀라움을 느낄 때가 많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더 지켜주고 존중해주어야겠다.

- 친구들과의 관계와 교육활동 : 상반기에는 교사들이 각자 활동을 준비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보고자 -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 문을 없앤 활동. 낮잠 전이라 아이들의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하고 대충 맛만 보는 간보기(?)와 늦게 하겠다고 온 아이들을 낮잠 준비로 밀어내야했던 미안함이 공존했던 불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평가인증 이후 낮잠 전의 시간이라는 활동시간의 틀을 정하지 않고 교사가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뜨개질, 바느질, 사방치기 등-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 더 탄탄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조금은 경험을 한 것 같다. 교사의 재능을 나누어 펼쳤던 작은 음악회와 그림자극 등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속에서 뿔어져 나오는 아이들의 주옥같은 말들과 즉흥적으로 나오는 인형극, 책읽기 등을 많이 담아두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관계에 있어서도 혼자여서 나눔에 대한 것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나 대들거나 화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말보다 주먹이 먼저 오고 감이 잦았던 상반기에 비해 왜 서로가 화가 나서 싸우는지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속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하는 일이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끝으로

액맥이 타령을 모두가 정말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

전 생애를 봤을 때 지금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물음을 항상 하며 나부터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야겠다.

부족한 저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동료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방

2월 교육평가 및 3월 교육계획

노승복(씩씩한 나비)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 시작한 짧지 않은 ‘안식월’ 한 달의 시간동안 낮잠도 자고 친구를 만나 놀러도 다녀오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며....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재충전 할 기회를 준 아마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좀 더 좋은 식단을 준비 해야겠지요? ^^

요리활동 1 - 감정 만들기

매서운 날씨 탓인지 나들이 때 쌀 한 봉지를 들고 화요시장, 푸른 평화 근처, 월요시장을 다 돌아 다녔지만 쌀을 튀겨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추운 날씨에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결국에 체리샘의 시골 어른 댁에서 가져온 귀한 쌀 튀밥을 가지고 강정을

만들었다. 이날은 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나비는 오곡밥 준비를 하고 아침 썰미 진행을 했다. 엿물(엿, 설탕 녹인 물)에 버무린 쌀 튀밥을 방별로 나누어주고 뜨거우니 조심하고 손으로 꼭꼭 주무르면서 동그랗게 만들라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만들고 먹어도 되냐고 묻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렸다. 달콤하고 바삭한 과자를 어찌 먹지 않고 그냥 지날 수 있을까? 단 강정 덕분인지 그 맛있는 오곡밥(수수, 찹쌀, 차조, 팥, 대추, 꽃감, 은행)은 찬밥신세였다. 하지만 오곡밥의 여러 가지 곡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과 삼색나물과 부럼 깨기 등에 대해 이야기도 해 주어서 정월대보름의 유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요리활동 2 - 떡꼬치

아이들이 먹기에 적당한 떡볶이 떡을 방앗간에서 직접 뽑아왔더니 떡이 참 가늘고 귀엽다고 좋아했다. 빵칼을 사용해서 원하는 길이로 잘라 꼬치에 떡, 은행, 떡순서로 꽂도록 했다. 허수아비 모양, 산 모양, 길쭉이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을 응용해서 만들어서 더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오후간식으로 매콤 달콤한(물엿, 고추장, 케찹, 설탕, 간장을 조림) 소스를 구운 떡꼬치에 발라서 내주었다. 고추장 들어간 음식은 평소에는 맵다고 물부터 찾는데 맵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자리 이동 없이 너무 잘 먹었다. 문경이의 다 먹고 난 한마디

“아~~잘 먹었다. ^0^”

요리활동 3 - 고구마 김치 고로케

올해 김치가 많아 신 김치를 사용해 간식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고구마와 잘 어울리는 김치를 섞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로

케를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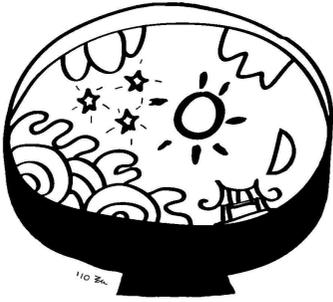
활동하기 쉽도록 고구마를 찌서 잘라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양파 썰고, 햄을 썰었다. 아이들 모두 각각 한 가지씩 일 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게 활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 곳에 넣고 버무려 경단보다 약간 큰 모양으로 만들었다. 생일 준비로 인해 경단을 많이 만들어 보아서 인지 아이들 모두 제법 빠른 속도로 모양을 만들어 냈다. 만드는 도중에 햄과 치즈를 먹고 싶었지만 꼭 참는 것 같았다. 튀기는 과정이 위험해서 만든 것은 한 곳에서 선생님이 튀기고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경만 했다. 따뜻한 고로케 한 개씩만 먹고 나머지는 간식시간에 맛보기로 하고 아이들을 달랬다.

맛난 고로케 먹자는 소리가 낮잠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 아삭한 김치맛, 고소한 치즈 맛을 너무나 좋아했다. 양이 많아 아이들 모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 혹시나 기름으로 인해 느끼하지는 않을까 싶어 후에 사과 한 조각씩을 주어 느끼함을 달래주었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생일에 만들어 먹이는 수수팥떡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먹지 않아서 고심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탕을 조금 첨가 하고, 멥쌀을 섞어서 수수팥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먹었다. 다음 달부터는 이번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이번 달에는 사과, 피클, 이사떡, 커피, 백설기, 오미자, 액기스 등을 부조 받았습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ㅎ 



씩씩한 맛있는 3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오전간식				삼일절	만두국	빵·우유
점심				휴원	우거지된장국 콩조림 오징어진미무침	카레라이스
오후간식					닭고기떡꼬지	
	5	6	7	8	9	10
오전간식	새우죽	떡국	흑임자죽	블루베리요플레	김주먹밥	
점심	청국장찌개 멸치볶음 참나물무침	육개장 미역줄기볶음 흰콩다시마조림	야채비빔밥 다시마무국	냉이된장국 우영조림 묵미나리무침	굴미역국 닭고기구이 시금치나물	
오후간식	오징어김치전	옥수수술빵	통감자구이	어묵탕	혜승생일	
	12	13	14	15	16	17
오전간식	자죽	새우스크램블	땅콩죽	고구마스프	김밥	씨리얼,우유
점심	콩나물김치국 어묵야채볶음 툇나물두부무침	콩비지찌개 돈육장조림 미나리무침	해물자장밥 맑은된장국	시금치된장국 동태전 콩나물당근무침	홍합무국 계란말이 도라지초무침	야채볶음밥
오후간식	콩나물전	과일요플레	요리활동.장담그기 가래떡조청	브로콜리새우오믈렛	군고구마	
	19	20	21	22	23	24
오전간식	누룽지탕	김치주먹밥구이	참깨죽	계란토스트.우유	유부초밥	
점심	순두부찌개 고사리나물 메추리알장조림	닭고기국 브로콜리,초고추장 두부양념조림	돈까스덮밥 샐러드	고등어무찌개 연근조림 무말랭이	쇠고기미역국 오징어구이 샐러드	
오후간식	감자전	잔치국수	요리활동.마전	떡볶이	별민소생일	
	26	27	28	29	30	31
오전간식	콩나물갱시기	조랭이떡국	멸치주먹밥	버섯야채죽	딸기잼요플레	삶은계란.매실
점심	재첩국 시금치두부무침 새송이볶음	우거지된장국 삼치간장조림 미나리나물	들깨미역국 훈제오리볶음 상추겉절이	김치볶음밥 무맑은국	어묵무국 야채계란말이 김구이	짜장면
오후간식	핫도그,사과	김치전	현동생일	찐빵	호떡	

해바라기 방과후 2월 교육평가 및 3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 2월 해바라기 교육평가

2월이 되어서 1학년들도 점점 적응해 나가고 특히 새로 온 아이들이 등원을 했다. 1학년들은 아무래도 씩씩한 어린이집에서 만이로 있다가 방과후에서 막내로 있는,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 하면서 또 겪어야 할 문제 인지라 방과후에서 미리 적응한다 생각하면 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래도 잘 적응하는 것은 대부분이 둘째라는 이유로 만이들이 알게 모르게 챙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랑이가 하민이를 챙기는 경우가 각별하기도 했다.

아침 일찍부터 오는 1, 2학년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 올 때까지 방황 아닌 방황을 한다. 놀꺼리를 찾아 이리저리 터전을 들쭉시키고 다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 하랑이나 찬우나 재홍이나 해균이가 와야 제대로 된 놀이가 진행된다. 아직 2학년들이 1학년에서 올라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지어 놀 때 구심점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2학년 한 해 동안 중간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며 형 노릇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새로 터전에 합류한 기연이, 석영이, 강민

이, 서준이는 나름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각 아이의 성격대로 적응하고 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교사들에게 반말 쓰는 것이 어색해서 존댓말을 계속 쓰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할 것이다. 다만 친구에게 하는 반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반말을 사용하도록 교사들도 노력해야겠다. 명령조의 강압적인 반말이 되지 않도록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

♥ 디카 사진찍기

아이들과 금요일 미리 공지를 하고 디카를 가져 오도록 했다. 아직 디카가 준비 안된 아이들도 많았지만 준비 되는대로 가져 오도록 했다. 첫 번째 출사 나가는 날 5명의 아이들이 디카를 가져 왔다. 이 날 전기연, 전유설 자매도 처음 터전에 왔는데 함께 천을산에 사진 찍으러 갔다. 천을산 입구 비석터에서 여서 비석과 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나름 진지한 표정으로 디카를 가져온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다. 여러 우스운 설정도 보였고 무턱대고 찍는 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단연 인기 모델은 기연이 유설이 자매였다. 여자아이들이 사진을 찍기 위

해 이 자매들을 이곳저곳에 세워 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기연이와 유설이가 그리 싫은 표정은 아니었다. 아직 디카 사진 감상회는 하지 못했다. 빨리 사진 감상회를 하고 난 후 디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아이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겠다.

♥ 대구 스타디움 긴 나들이

요즘 종종 대구 스타디움을 걸어서 간다. 많이 걸어 본 우리 아이들은 별 무리 없이 걸어 다녔는데, 서준이는 많이 힘들어 했다. 아직 다른 새로운 아이들이 오지 않을 때여서 우린 무작정 가장 짧은 길을 통해 대구 스타디움으로 향했다. 가장 앞선 아이, 가장 뒤에선 아이의 거리차가 꽤 났지만 몇 번 다녀 본 길을 아이들은 익숙하게 걸어갔다. 보통은 각 종 공이랑 야구용품들을 들고 가는 데 걸어야 하나까 별로 챙기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놀까 하던 차에 기념탑을 뛰어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손 짚기를 한다. 전통의 강호 해군이 높이를 자랑하며 터치를 한다. 그 뒤를 운동신경이 좋은 환승이가 뒤 따른다. 그리고 나름 날래고 재바른 동현이와 세하가 열심히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오른다. 남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한다. 순식간에 재미있는 놀이가 아이들에게 벌어졌다. 몇 순배를 돌아 아이들이 서서히 서로의 기량을 알아 갈 때쯤 공익요원들이 지나가면서 말린다. 여기 표지판 안 보이냐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급 놀이가 마무리 되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교사 입장에서 계속하라고 할 수도 없었다. 또 다른 놀이를 찾아 눈을

번뜩이는 아이들이 새삼 대단해 보인다.

♥ 아이들의 일상

여자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안 해품달 드라마를 찍었다. 여러장면을 찍었지만 한가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묶여있는 장면이 가장 압권이었다. 별다른 대사도 없고 그냥 묶어 놓고 누워있는 모습을 해품달이라고 찍는 것이다. 그때 해품달에서 한가인이 잡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여자아이들은 그 난리를 치면서도 계속 그 놀이를 좋아했다. 그리고 한쪽 방에서는 포도와 아이들이 바느질을 한다. 조그만 가방을 만드는 일에 몇몇 여자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며 달라 붙어 있다.

남자아이들은 한창 야구 훈련을 마당에서 해군이를 중심으로 펼쳤다. 방망이질, 공던지기, 장애물 피하기, 장애물 건너기 남자아이들은 저마다 그 역할에 빠져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 특이한 것은 정수아가 매니저를 자처하며 오빠들에게 물을 떠다주고 뒷바라지를 하는 일이다. 그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콩콩 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저마다 신나게 뛰어 다닌다. 그러나 유독 누나들이랑 남자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잦다. 선 넘어오는 것이 다반사인데 기분 안 좋은 날은 그마저도 꼬투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날에서 그 아이들과도 문제가 생기기도 다 아는 처지라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아이와 감정

이 그 전부터 있어 왔을 때는 크게 싸우기도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콩콩랜드에서 방방 뛰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특히 서준이는 그 큰 몸을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난감해 하면서도 잘도 논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온 몸을 던진다.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시간이 나면 색칠을 한다. 만다라를 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팬더 그림을 색칠한다. 새로 온 아이들이 색칠을 꼼꼼히 하는 편이라 우리아이들이 자극 받기도 하고 박희연은 그 안에서 언니의 힘을 보여준다. 새로 온 기연이와 지언이를 잘 챙기면서 같이 논다.

마당에 책방에 있던 낡은 쇼파를 꺼내 놓았다. 채환이를 중심으로 어린 동생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모험 놀이를 한다. 여기에는 남자아이들도 다수 참여했다. 타이어와 나무 책장 그리고 평상을 이용해서 일련의 코스를 만들고 거기를 안 떨어지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좀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더욱 조심하며 건넌다. 그 놀이가 끝나면 평상에서 쇼파까지 뛰어 내리기도 있다. 겁 없이 뛰어내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용감하다. 뭐 별다른 위험은 없지만 뛰는 일 자체가 용기를 내야하는 일인지라 뛰는 아이들만 뛰어내린다.

석영이와 강민이가 합류하고 나서 마루에서 농구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거의 5대5로 경기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아직 룰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해균이가 적절히 가르치면서 농구를 한다. 남자아이들의 몰입도가 굉장하다. 강민이는 농구를 위해 터전에 오

지 않았을까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몸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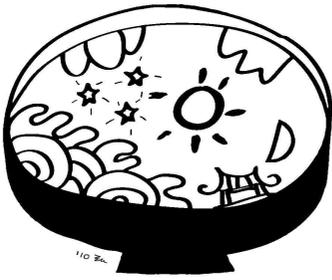
♥ 졸업식

드디어 졸업식이다. 아이들은 별로 실감나하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도 가끔 들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래를 준비하면서 작별 같은 슬픈 노래를 준비할까 생각했는데, 포도가 만류하신다. 이왕이면 기분 좋게 보내게 밝은 노래를 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준비한 곡이 얼굴 찌푸리지말아요 이다. 아이들도 들어본 노래라서 곧 잘 따라 불렀다. 그러나 막상 실전이 되니 조금 떨렸나 보다. 예비로 준비한 악보를 거의 다 들고 불렀으니 말이다. 한 곡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꿈꾸지 않으면’을 불렀다. 이 곡 또한 우리 단골 노래여서 아이들이 금방 따라 불렀다. 당초 해균이 재홍이 병준이의 ‘감사합니다’ 앵콜 공연을 기획했으나 아이들의 극도의 부담감으로 인해 졸업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취소하는 아픔도 있었다. 막상 취소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표정이 대번에 밝아졌다.

졸업증서와 명예교사증서를 이번 나가는 아이들에게 주고 나니 맘이 허전하고 아프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한 아이들이기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라 생각하니까 불쑥불쑥 찾아오는 아이들이 기대된다. 안본 사이에 어떻게 변해있을까 하고 말이다. 

♥ 해바라기 방과후 3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동근모듬 애니메이션	3
5 명상과 만다라	6 천을산 디카사진	7 긴나들이 중앙도서관	8 개인 활동	9 동근모듬 생활규칙 고산초	10
12 연극놀이 (친해지기)	13 천을산	14 긴나들이 박물관	15 개인 활동	16 동근모듬 고산초	17
19 지점토 만들기	20 천을산	21 긴나들이 디카사진 대구스타디움	22 개인 활동	23 명상과 만다라	24
26 해바라기 대회 이어달리기 줄넘기	27 천을산 진달래 따기	28 요리활동 진달래 화전	29 개인 활동	30 동근모듬 디카 슬라이드 쇼	31



해바라기 맛있는 3월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점심				소고기미역국 닭야채조림 부추겉절이	
간식				전하랑 생일	
	5	6	7	8	9
점심	재첩국 어묵볶음 시금치무침	맑은감자국 오징어초고추장 깻잎찜	짜장밥 단무지 계란국	오징어무국 감자볶음 달래오이무침	동태무국 버섯야채볶음 계란찜
간식	고구마스프	감자수제비	꼬마김밥	어묵탕	과일요플레
	12	13	14	15	16
점심	순두부찌개 오징어진미무침 연근조림	유부된장국 매추리알장조림 봄동무침	오무라이스 맑은장국	북어미역국 돼지고기수육 야채쌈	시금치된장국 두부조림 파래무침
간식	조랭이떡국	도토리묵채	샌드위치	김유민 생일	부추전
	19	20	21	22	23
점심	냉이된장국 오징어두루치기 미역줄기볶음	김치찌개 콩나물무침 구이김	햄김치볶음밥 무국	어묵국 도라지초무침 계란말이	시래기국 지리멸치볶음 브로콜리초고추장
간식	잔치국수	핫케익	김주먹밥	또띠아피자	떡볶이
	26	27	28	29	
점심	북어국 감자조림 버섯볶음	호박된장국 코다리조림 숙주나물	산채나물비빔밥 배추된장국 계란후라이	홍합미역국 돼지불고기 무생채	
간식	떡만두국	닭백숙	삼각김밥	정해군 생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힘이 덜 드는 법

김병현(해바라기 토토로)

아이들과의 준비 모임시간. 들살이를 가기에 앞서 잠시 불러 모았다. 서울을 간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눈치이다. 일정도 소개하고 준비물도 체크하면서 아이들의 눈에 점점 서울 들살이가 현실로 다가왔다. 모두가 모이면 15명은 충분히 넘어가겠지만 재홍이와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4명이나 빠지면서 들살이 일행이 대폭 간소화 되었다. 11명 정도 아이들이라면 알바 선생님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충분하리라는 판단이 생겨 그냥 나랑 11명의 아이들이 서울 들살이를 가는 것을 확정지었다.

출발 당일 다들 자기 몸통만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전에 모였다. 살짝 들떠있는 모습에 부모님들은 걱정과 기대하는 얼굴로 아이들을 보내주셨다.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한 우리는 서둘러 KTX를 탔다. 몇 번 타본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 타본 아이들은 얼굴에 기대감이 넘쳐났다. 촌스럽게 여기 기차 안에서 화장실을 가도 되냐고 몇 번이고 묻는다. 웃으면 화장실은 저쪽이라고 소개하고 이용 방법은 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이라고 곧 잘 방법을 터득했다.

서울역에 내린 아이들은 다들 입이 짝 벌어졌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과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에 기가 죽은 모습이 다. 그래서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라서 원래 이래 하면서 내가 앞장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과천으로 먼저 갔다. 여기 지하철도 사람이 많아 아이들이 서서 탔는데, 서울 들살이 내내 앉아서 간 기억이 별로 없다. 아이들은 대구 지하철이 훨씬 좋으면서 서울 지하철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타기 전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를 하나씩 사주고 오천원을 충전해 주었다. 이제부터 개인이 카드를 관리하고 찍으면서 다녀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챙기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오는 날 까지 분실 없이 아이들이 자기 것을 잘 챙겼다. 보통은 하나 둘은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긴장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과천 두근두근 방과후에 도착했다. 좋은 2층집인데 안에 방도 많고 벽난로도 있다. 우리 아이들 입이 딱 벌어진다. 살짝 놀란 눈치에 방과후를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아이도 있었다. 일단 두근 아이들과 인사도

할 겸해서 모두 불러 모았다. 5,6학년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서 4학년 까지만 있었는데 1층 거실이 가득 찼다. 우리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주눅이 든 모습이다. 대구 아이들이 소개시간인데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 부끄러워서 자기소개는 더욱 못하겠다고 한다. 중간에서 내가 소개를 다하고 서로 인사하고 우리는 밥 먹으로 얼른 나왔다. 두근두근 앞 상가에서 감자탕을 먹었다. 아이들이 감탄을 하며 감자탕 최고라고 한다. 사실 배가 무척 고팠던 상황이라 무엇이든 잘 먹었으리라 생각된다.

또 지루한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을 거쳐 시청에 내렸다. 덕수궁 대문인 대한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는 바로 광화문으로 직행했다. 아이들이 티비에서만 보던 이순신 장군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마주하며 감탄을 내지른다. 서로 사진을 찍어 가면서 새로운 풍경에 관심을 가졌다. 멀리보이는 광화문에서 교대식이 열렸다. 우리가 다가다니 끝났지만 수문장들이 마네킹일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은 가까이 가서야 풀렸다. 그 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니 아이들이 겁을 낸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욱 그러했다.

경복궁을 들어서니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특히 중국과 일본인이 많았다. 노랑머리 외국인도 많았다.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아미산, 뒤흔에 연못까지 그 넓은 왕궁을 이리저리 다니다 평상에서 휴식을 취했다. 여자아이들은 평상에 앉아마자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것저것 게임을 한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이 녀석들이 보라는 왕궁은 안보고 휴대폰만 본다.

다리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민속 박물관에 가서 겨우 음료수를 먹이고 진정시켰다. 민속 박물관을 한참 보고 있자니 5시라고 나가라고 한다. 아 억울해! 좀 더 봐야하는데, 교사의 욕심은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재미있는 걸 찾아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청계천을 거쳐 무교동 거리에서 낙지볶음을 먹고 싶었지만 때문에 그냥 짜장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아이들은 자기 짜장면을 한 번에 비워버린다. 늦은 저녁 우리는 서울 시내 길을 걸어서 지나오면서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높은 빌딩과 바쁘게 걷는 사람들과 연 여기서 서울이구나 싶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과천에 도착하니 9시 가까이 되었다. 어라, 1층에서 어른들이 방모임을 하네? 우리는 조용히 2층에 올라가 씻고는 오늘 하루 고단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물론 조용히 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떠들고 놀다가 11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깨어난 아이들이 1,2층을 뛰어다닌다. 어제 밤에는 어른들이 10시 반까지 있어서 뛰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삼 토끼도 보고 햄스터도 보고 고양이도 봤다. 2층에 있는 직접 만든 대형 수족관에 물고기도 봤다. 집이 커서 다양한 것이 있었다. 아이들은 얼른 씻고 짐을 싸서 다시 한 곳에 몰아넣고 집을 나섰다.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 5분정도 가다가 발견한 분식집이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기 먹고 싶은 것이것저것 시키다가 몇 가지로 통일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빨리 먹고 가야하는 상황이

라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었다. 기껏 통일을 했더니 라면이다. 아이들은 만족해하면서 박희연만 우동을 먹고 나머진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다. 아침부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다들 좋다고 한다. 얼른 먹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과천 국립 과학원 오후엔 서울 랜드이다. 과천역에서 한번만 가면 대공원역이다. 금방 내려서 과학원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사진 찰칵. 큰소리로 모아야 겨우 찍을 수 있는 단체 사진이다. 인상을 쓰며 모두 모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겨우 하나 건진다. 입장표를 사서 바로 입장했다. 옷을 일단 락커함에 넣고 조별로 움직이겠다고 한다. 휴대폰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가 형성되었다. 단체로 움직이기는 싫단다. 그냥 조별로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열심히 돌아보고 모인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 개중에는 개인 돈으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스크림 하나에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했다. 내부 관람은 어느 정도로 마치고 외부에 있는 친환경 집과 곤충 식물관에 갔다. 아이들은 곤충에 더욱 관심을 나타냈다. 여기 과학원은 나중에 좀 더 찬찬히 시간을 들여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아이들은 배도 고프고 서울 랜드도 빨리 가보고 싶단다. 얼른 서울 랜드 가자고 여간 성화가 아니다. 난 과학원에 더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밀려 서울 랜드로 갔다.

사실 배고플 때도 되어서 서울 랜드에 가자마자 밥을 먹었다. 한우 쇠고기 국밥.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거기서 먹은 떡볶이는

영 아니었다. 맵기만 하고 입에 달라붙는 맛이 없었다. 이걸 아이들도 동의한 맛이다. 이제 서울 랜드 탐험을 해야지. 배도 똥똥하게 부르니 말이다. 그런데 막상 놀이기구를 타는데 승훈이와 준탁이가 저 자세로 나온다. 재미있는 건 놔 두고 재미없고 시시한 것만 타려한다. 왜냐고 물으니 머리 아프고 무섭단다. 헐~~~. 오히려 해군이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다. 여자아이들은 자기들끼리는 무섭고 내가 꼭 같이 타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몇 번씩 탔다. 오히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아이들 놀이시설에서 더욱 재미있게 놀았다. 그래도 착시체험관이나 여러 아기자기한 놀이기구를 타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했다. 사실 자이로드롭이나 큰 바이킹 같은 것을 타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중간 중간 간식을 먹으며 날 추운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6시는 서울 랜드 마감 시간이다. 모두 나오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면서 서울 랜드를 나왔다. 나오는 길에 들어올 때 2천원 하는 닭 꼬치가 천원이라고 한다. 얼른 12개를 시켜 하나씩 입에 물었다. 그 뒤를 다른 사람들이 달라붙어 순식간에 닭 꼬치가 동이났다. 우리 12명이 가게 앞에서 먹고 있으니 다들 맛있어 보였나 보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 과천역에서 내리지 않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역에서 내렸다. 나를 과천 변화가이며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국수 나무라는 가게이다. 국수와 돈까스가 주 메뉴인 집이다. 여자아이들은 오리엔탈 소스 라이스, 남자아이들은 치즈 돈까스 메뉴 선택은 남자아이들의 승으로 끝났다. 엄청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 메뉴는 먹

기에 좀 짠맛이 강했다. 나름 맛있었는데 입에는 썩 맞지 않았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 다 먹어치웠다. 부폰 배를 안고 두근두근까지 걸어서 갔다. 아이들은 한 정거장을 지하철 타고 가는 것에 반대했다. 배 꺼져야한다고 걸어야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또 걸어가자는 아이들이 신기했다.

오늘도 또 다른 방모임 어른들이 모여 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씻었다. 왜 방모임을 연속 두 번이나 하냐고 물으니 일정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살짝 나만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은 2층에서 잠자리 준비를 하고 놀았다. 놀면서 나에게 계속 확인한다. 야식 어떻게 되었냐고 말이다. 두근두근 교사회에서 우리아이들에게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준다고 했다. 먼 길 왔으니 주인 된 입장에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말이다. 아이들은 밤에 먹는 치킨을 상상하며 계속 기다렸다. 밤 10시 드디어 기다리던 치킨이 왔다. 아이들은 뼈까지 쪽쪽 빨아먹었다. 콜라도 왔는데 예상보단 적게 먹는다.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찾았다. 치킨을 다 먹고 양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물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승훈이와 준탁이의 방해로 늦게 자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해품달 본다고 늦게 자기도 했다.

난 방모임을 마친 두근두근 교사회와 늦은 밤 맥주 한잔을 했다. 아까 못 먹은 치킨을 미리 안주로 준비해서 말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더욱 늦은 밤에 잠을 청했다.

마지막 날 일정이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다. 기차표가 없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는 도저히 표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

서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이를 연속 밤마다 우는 김희연과 하루만 운 박희연 언제 집에 가냐고 묻는 아이들까지 있어 하루 더 자는 건 무리였다. 그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요일 1시 45분 기차를 예매했다. 우선 김희연이 되살아났다. 밤마다 시무룩한 희연이가 기사희생한 것이다.

아침 일정을 서둘렀다. 어제 아침을 먹은 집에 가서 미리 예약한 만둣국을 먹었다. 아이들은 맛있다고 한 그릇을 거의 비워냈다. 지하철을 타고 이촌동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다시 과천으로 갈 시간이 없어 모든 가방을 들고 나와야 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소 무거웠다. 박물관에서 개인용 MP3, PDA를 빌려서 착용했다. 여자아이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남자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훌쩍 가버렸다.

1층을 다 관람하고 로비로 가니 남자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사소한 시비로 병준이와 하랑이가 몸싸움을 한다. 얼른 중지시키고 물으니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긴다. 나한테 물어보니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니라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일단 형에게 덤빈 하랑이를 나무라고 병준이도 형으로써 가져야할 배려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하랑이에게는 다소 미안했지만 병준이에게서 동생이 덤빈 것에 맘이 상한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도 둘이 짝인지라 자판기 음료수를 같이 먹고는 금방 좋아졌다.

시간에 다소 쫓겨서 박물관 전관을 둘러보지 못하고 또한 과천아이들과 피구와 이어달리기 시험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상 서울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오전에 박물관 가지 말고 과천 아이들이랑 시합을 하자고 했지만 오전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오후가 되어야 제대로 된 겨루기가 되기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서울역 KTX에 올라타고 드디어 대구로 내려온다. 미리 빵집에 들러 샌드위치 세트를 샀다. 그리고 음료수도 준비했다.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간식으로 먹었다. 내려갈 때여서 그런지 여유도 있고 잠을 청하는 아이도 있었다. 올라 올 때는 창밖을 보느라 누구하나 자는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잠을 잔다.

대구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늦은 점심을 먹는 일이다. 역안 분식점에서 불고기 덮밥을 시켜 먹었다. 기차 안에서 간식을 다 먹고도 늦은 점심을

한 그릇 몽땅 비워낸다. 배가 부르니 아이들에게도 여유가 생겼다. 자기 짐을 손에 들고 메고 버스를 탔다. 고산초 앞에 내리는 순간 아이들은 드디어 다 왔다고 깊은 한숨을 내뿜는다.

터전에서 기다리는 아마들의 인사를 받으며 아이들은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들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름 즐거운 마음으로 들살이를 다녀왔던 것 같다. 물론 긴장의 연속이긴 했지만 아이들과의 여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힘이 덜 드는 법이다. 이것이 이제껏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나름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을 먼 훗날 아이들이 추억으로 떠올려 즐거움 기억이기를 바라며 이후기를 마친다. 

세계적인 미모의 엄마와 팔불출 아빠 사이의 귀한 딸님

이병동(씩씩한 이루다 아빠)

루다네 가족입니다.

루다네가 사는 곳은 팔공산 아래 봉무동입니다. 아직도 한 번씩 산 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루다는 결혼 8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입니다.

초로의 늙은 부부가 이제까지 키우느라 엄청난 힘이 부쳤습니다.

루다 모친께서는 세계적 미모와 국제적 지성을 겸비하신 여인입니다.

지역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했고 루다 아빠와 회사를

같이 운영하며 독보적 자질과 능력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루다의 출산이후 양육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물론 양육에도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시어 지금까지 루다를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도 좋아하십니다.

루다 아빠는 조그만 영상제작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자칭 <지역적인 카피라이터>이며 <3류 CF 감독>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옥같은 영상작품을 수 백편 만들었지만



생애 최고의 걸작은 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리들은 문득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직전에 스티브잡스의 자서전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싫어합니다. 대신 환타를 술처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딸 루다.

보시는 대로 그대롭니다. 상당한 미모이긴 하지만 아직 루다 모친에게는 필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이제는 엄마 아빠를 갖고 노는 수준까지 자랐습니다.

대략 요기까지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차차 서로 만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이만 총총. **씩**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류정하(씩씩한 강유채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살 먹은 강유채입니다. 네, 유채꽃할 때 그 "유채" 맞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게 된 2009년 봄, 엄마와 소풍을 나간 아빠가 만개한 유채꽃 무더기를 본 그 이후로부터 나는 유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엄마는 유채꽃 옆으로 올라온 보리가 더 예뻐했는데, 나는 그 때 아빠가 엄마를 이긴 것이-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겠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보리는 아무래도 좀.....



나물로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낱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은혜에 항상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강유채'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아빠는 저의 발랄한 성격이 유채꽃의 꽃말-명랑, 쾌활-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사십니다. 정말이지 노래와 춤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의 '끼'는 머루도 인정해주었는걸요? 며칠 전 머루가 엄마에게 "유채는 신이 있어서 장구 배우면 잘할거라예!"라고 말한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유채꽃이 꿀도 주고, 기름도 주고,

제 소개는 이쯤 해두고 지금부터 우리 엄마아빠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1999년 4월 어느 날, 경북대학교 일청담. 엄마는 남의 학교에 와서 '신입생 가두모집'이란 것을 하고 있었답니다(엄마는 대학교연합동아리 '○○회'에 들어간 이후로 대구교대보다 경북대학교를 더 잘 다닌 것 같아요^^). 그 날 엄마는 '나에게도 드디어 후배가 생긴다'는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회 한 회원이 길 가던 같은 과 신입생을 물어 왔대요. 엄마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 신입생을 반겼을지 그려지시지요? 깡마른 체격에 두꺼운 돋보기

빨테안경, 낫술을 했는지 별 정게 달아오른 얼굴은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전 여자가 싫습니다!" 이 말을 내뱉기 전까지는요. 뭐 이런 개뻥다구 같은... (아, 잠시 제가 4살이란 걸을 깜빡했습니다 ^^;)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아빠는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특히 엄마를 우울하게 만들었답니다. 여하튼 아빠는 엄마의 피(!) 같은 후배가 되었고, 여자가 싫다던 아빠가 여자들에게 바람 맞을 때마다 엄마는 순댓국과 코코아를 사주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분명 우리 엄마는 전생에 천사 사촌이나 보살 쯤 되었지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다시 가실거래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요즘 계속 우울모드입니다. 학교는 터전처럼 재미가 없나 봐요. 아빠는 ○○ 주민센터에서 일하십니다. 기획이 있을 때마다 '동구 얼짱 1호'를 부르짖으시는데 이젠 그만 인정해드려야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육아에서만큼은 인기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

10년 후, 유학을 가려던 엄마를 붙잡은 것이 화근(?)이 되어 아빠와 엄마는 3년 전부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두 사람은 자주 함께 경기를 일으켰답니다. '헉! 니(누나)가 왜! 우리가 어찌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십년을 선후배로 지내왔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아빠도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글썄 얼마 전 결혼기념일엔 두 사람이 술잔을 들고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ㅋㅋ 엄마아빠도 참...

저는 2월 8일부터 씩씩한 어린이집을 씩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금 엄마 생각도 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마랑 노는 것보다 터전이 훨씬 재미납니다. 밥도 맛있고, 나들이도 즐겁고,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들도 온다니 요즘은 정말 살맛이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언니오빠들입니다. 언니오빠들은 내가 정말 좋은가 봐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귀엽긴 해요. 차람이 언니에겐 미안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 엄마가 이제 그만 자라고 하시네요. 내일 또 신나게 놀려면 얼른 자야겠어요. 그럼 안녕. 



엄마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3월부터 ○○

“함께하는 세상 평등한 사회”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읽고

강현욱(씩씩한 유채 아빠)

I. 들어가며.....“사랑하는 유채에게”

나의 딸 유채야. 아빠는 네가 태어난 2009년 11월 29일, 그날을 잊지 못한다. 반가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울었던 그날을..... 반가움은 30년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만났기에, 고마움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기에 생긴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미안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인간은 태어났을 때 잠깐의 자유를 맛보고 이후 도처의 쇠사슬로 묶여진다는 루소(J.J.Rousseau)아저씨의 말에 아뻏 공감한다. 아빠 또한 권위주의와 폐쇄적 제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불평등과 경쟁, 구속, 폭력 등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너의 허락도 없이 너를 끌어들이기에 미안함이 생긴 것일 거다. 아빠는 어쩌면 조금이라도 면책 받고 싶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너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를, 평등을, 연대를, 그리고 자연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에 공동육아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선택이 아빠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해본다.

II.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이 곳 터전에서의 시간들은 너와 나의 인생에서 그리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외와

바닥을 향한 경쟁이 일반화된 우리의 삶에서 이곳 터전에서의 생활은 너와 나의 인생에 커다란 각인을 남길 것이다. 물론 나의 선택을 후회할 날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부끄럽진 않을 것이다.

공동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한 집단이라 아빠는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 조상들처럼 생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부분적인 공동체, 즉 지금 너와 내가 참여한 육아 공동체 등은 가능할 것이고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란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즐거움만큼 사람의 마음을 서로 맺어 주는 것은 없단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즉,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조건이자 목적이자 본능이란단다.

교육의 최종목적은 전인격적 인간, 인간본연으로서의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자행되는 강제적 지식 주입은 교육이 아니라 지식전달 정도가 될 것이다. 유채도 어른이 되면

이러한 지식전달과 습득을 강요받게 될 것이기에 진정한 교육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자연을 닮은 아이들“.....인간본연의 모습은 자연이란다. 자연에서 놀면서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동무들과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 너에게 짧지만 이러한 교육을 전해줄 수 있어 아빠는 기쁘다.

너도 살면서 겪게 되겠지만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평등성은 자본, 계층제,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높임말이라는 언어에 내재된 계층제가 있기 때문이지. 높임말이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소통에 있어 벽을 만들 수도, 권위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체화시킨다는 나쁜 점도 있다. 씩씩한 터전에서는 너에게 높임말을 강요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 이를 통해 너의 생각을 정확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빠는 기분이 좋아진다.

유채도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핵가족화, 노인문제, 이웃간 불신, 저출산,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빠 또한 직장과 사적 모임 외에는 이웃과는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일반인이지. 의무와 쾌락으로 형성된 집단은

비자발적이고 정신적 포만감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외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단다. 따라서 가치관을 공유한 공동체를 통해 관계맺기를 하고, 소통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분명 아빠와 엄마, 그리고 너의 삶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억이 사고의 전환을 낳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I. 나가며.....“유채”

독후감제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너에게 편지를 쓴다. 처음쓰는 편지라 황설수설했지만 쓰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단다. 언젠가 유채가 이 편지를 읽을 것이라 생각하니 긴장도 되는구나. 유채.....엄마,아빠가 너를 가진 얼마후 여행을 갔는데 유채꽃이 너무 예뻐 아빠는 너를 유채라 부르기로 했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 태명인 유채보다 더 예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름도 유채라 하기로 했지. 유채란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있어. 유채꽃은 혼자 필 때도 예쁘지만 함께 있을 때 단아하고 더욱 아름답지. 아마 서로서로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일거야. 유채도 동무를 빛나게 해주고 이것이 유채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 명랑이란다. 유채도 씩씩하고 밝게, 바르게 자라나길 바란다. 유채 너의 이름처럼 이 곳 터전이라는 공동체에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빛나길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치고자 한다. 

청소하면서 자라고 회의하면서 배우는 어른들

-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읽고 -

류정하(씩씩한 강유채 엄마)

한 지붕 세 가족. 내가 어릴 적-어린 내가 보아도 좋았던...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곤 했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다. 한 지붕에 살고 있는 세 가족과 그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사람 간의 정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갔다. 주인과 세입자라는 종속적 관계에 따른 문제도 종종 등장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웃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우리네 삶에는 이웃이 있었다.

나는 지금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윗집은 밤늦게 청소기를 돌려서 거슬리고 아랫집은 아이가 집에서 뛰어다닐 때마다 신경 쓰이는 사람들일 뿐, 누가 사는지 모른다. 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지 이웃이 아닌 것이다. 그들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는 까닭이다.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미 지음, 또하나의 문화)은 '육아'라는 공동의 고리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루어 가는 공동체적 삶의 구체적인 방편들을 하나씩 보여준다. 별명과 반말 문화, 나들이, 날적이, 마실, 아마활동, 방모임, 교사회, 소모임, 각종 회의... 공동육아의 문화라고 불리는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고민과 노력의 결정체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공동육아의 '오늘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최대과제가 아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있는' 것이라면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은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공동육아는 '육아' 너머를 고민한다. '육아'가 삶과 분리되어 이루

어질 수 없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육아로써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생산공동체나 신앙공동체에 비해 분명 낮은 수준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거칠게 말하면 '내' 아이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해 공동체를 선택한 사람들의 한 시적인 변형된 삶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육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구조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한 형태일 것이다.

나는 교육이 홀로 바로 서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공동육아를 선택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어려서부터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자연'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 촌놈으로 나고 자라 손발을 놀릴 줄도 모르고 더불어 사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자기중심적인 습관에 젖어 반복하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의 원일 것이다. 공동육아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부모인 '나'의 한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믿는다. 또, 무엇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시간들을 믿는다.

이제 세 번 했는데 청소하러 가는 것이 귀찮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회의도... 앞으로 직면하게 될 조합원 간의 대립과 반목도 두렵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공동육아의 더 큰 생각과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더불어 가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본다. 그때 나에게 분명 좋은 이웃이 곁에 있을 것이다. 

공동육아. 내 인생의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며..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읽고

황성원(씩씩한 이루다 엄마)

2012 신규조합원 이루다엄마, 황성원입니다.

씩씩한 어린이집에 문을 두드리고자 고심했던 지난 9월 즈음부터 면접과 송년회, 몇 번의 뜨개질모임, 방모임, 소위모임, 마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대청소까지 이번 겨울을 지내며 어느새 쭉쭉한 조합원이 되었네요.

참 생경하고 낯선 곳이란 생각은 여전합니다.

또, 몇 십년 만에 독후감을 써야한다는 의무를 지워주는 이 곳이 참 독특합니다.

...

저희가 사는 곳 주변의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5권 중 딱 2권이 있더군요.

그 중 비교적 얇은 책으로 고른 것이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지은이가 처음 공동육아를 접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시작된 책은 나름 “아~ 나도 지금 이렇게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라 뭔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결국 지은이의 논문을 다시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은, 공부의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공동육아 서적을 미리 읽고 공부를 먼저 하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들이 들더

군요.

첫째, 1990년 중후반, 공동육아를 시작할 즈음 지은이가 관찰자로서 바위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마 소개, 그 속의 놀이, 문화, 관계...등을 소개하는 내용에 비취볼 때, 아직은 현재 나는 이 지은이와 같은 관찰자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난 한 아이를 세상밖에 내어놓기 시작한 부모의 입장에서 공동육아를 바라보고, 그 속의 교사를 바라보고, 쭉쭉한 교육에 대해 준비하는 출발점에서 있다는 극명한 차이가 책과 나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의무니까 끝까지 읽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둘째, 그러다보니 책 속 바위어린이집 아이들의 장면 장면들, 교사의 모습 등등이 사실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실험대에 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록들이지만 난 당장 쭉쭉한 아이들과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궁금하다는 강렬한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몇 번의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에 책 속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과정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셋째, 의도는 좋습니다. 신규 조합원으로서 입문서를 안내하고 공동육아의 당사자로서 목표와 방법들에 대해 사색해보는 시간

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여년
도 더 지난 논문을 읽는 것이어야 할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씩씩한에는 뭐가 없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조합원이 저의 눈에는 매달
생생한 관계와 놀이와 먹거리와 터전과 교
사와 아이들이 등장하는 소식지가 보였습니
다.

홈페이지에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올려져
있는 씩씩한의 소식지들이 오히려 신규 조
합원의 교과서이고 앞서서 들여다 볼 수 있
는 생생한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하는...생각
이 들었습니다.

작년 1년간 씩씩한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
은 일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울었다
더라,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에
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신규 조합원으로서
공감하고 또 궁금증과 왜?라는 의문들을 나

름 정리해줬다가 교육의 날에 함께 공유하
고 선배 조합원들에게서 그 해답들을 찾아
보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은 이제 본
격적으로 아이를 터전에 보내면서 잊어버리
지 말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 이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뭐 이런 실마리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책속에서 오래된 단어, 야학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게서 야학은 큰 터널이자 빛이었던 시
절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의 나의 모
습일까...라는 너무도 큰 터닝포인트로서의
의미일진대... 공동육아, 씩씩한 어린이집이,
홀짝 세월이 지난 후 돌아봤을 때 다시 큰
터널이자 빛으로 기억될지 참 기대가 됩니
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과제를 부여하고 옥죄어서는 안 된다.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를 읽고

이병동(씩씩한 이루다 아빠)

루다 애비, 이병동입니다.

제가 본 책은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입니다.

원래는 코뿔소 운운하는 제목의 책을 읽으려 했으나 루다 모친께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빌려 놓은 터라 마지못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만만찮은 두께의 책이더군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독후감을 글로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말발이 더 형편없는 나로서는 감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책 내용을 나열하며 심층 분석, 해부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나의 지적 수준이나 사고의 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져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에 대한 교묘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혹은 대략적으로 그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ㅎㅎㅎ

감동의 쓰나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읽는 내내 건조주의보 발령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술대회에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라 다분히 학술적인 문장들이 거슬리기도 했고.

독서를 하고 난 후에 적는 감상이 독후감이라면, 감상적일 것을 찾기가 힘들지만 굳이 감상적인 단어가 떠오른 게 있다면 <향수>라고 해야 할까? 이미 떠나와 버린 곳에 대한 그리움, 예전에 내가 자랄 때의 모습...

결국 우리의 방식이 옳았구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더 거슬러 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교육방식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스스로 경험하며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웠던 1차 집단적 공동체, 이렇게 책으로 학술적으로 혹은 거창한 이론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했던 그것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먹거리 또한 그러합니다. 예전에 너무나 흔하게 먹었던 것, 그것이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포장되어 팔리는 것처럼. 웃기는 애깁니다.

마침내 책을 집어 던집니다. 이 조차도 무의미 한 것입니다. ㅎㅎㅎ

가장 공감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과제를 부여하고 옥죄어서는 안 된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ㅎㅎㅎ 

아이들의 행복은 물론 부모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공동육아를 바라며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읽고

천혜정(씩씩한 조승주 엄마)

공동육아에 참여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가 크다. 감상문을 적어본지도 꽤 오래 되서 낯설고 서툴기만 하다.

우선 반말문화와 별명 부르기 같은 기존 어린이집에서 볼 수 없는 문화에 놀랐고, 공동육아는 그렇게 하는 구나라고 듣고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다. 나는 어른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존댓말을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릴 때 몸에 익혀야 버릇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더욱 반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갔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 아이들이 하나의 상징이 가질 수 있는 다의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 또 반말을 통한 친밀성과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평등한 관계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걱정과 우려에서 반말 사용의 당당함을 자질 수 있었다. 특히 매일 나가는 나들이 문화가 제일 맘에 든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어른의 입장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체험과 놀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나들이는 직접 경험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이라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날적이의 역할과 가치의 의미가 아직 잘 와닿지는 않지만 아이의 일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알림장의 역할 외

의 다양한 형태의 날적이를 알게 되니 이후 내가 써나갈 날적이도 기대가 되고 아이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설레인다.

또 마실 문화는 공동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문화임과 함께 나에게도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아서 공동육아의 참여가 더없이 기대 되는 것 같다.

시지로 이사온 지 2년째지만 주변에 인척 하나 없고 두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또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없어 항상 잘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육아문제는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의 연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각자 다른 육아교육의 방식을 마실이라는 문화를 통해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를 아이 낳고 키우면서 느낀다.

처음 썩썩한 터전에 상담을 받으러 왔던 날이 생각난다.

적은 인원수, 반말과 별명, 날적이, 그리고 모래놀이터에서 도란도란 모여 노는 아이들, 부모들의 주체적인 활동등 기존의 내 생각을 깨버린 프로그램이 욕심이 났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아이들을 더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키우는 아이들

‘코빨소, 쇠뜨기가 뭐야’를 읽고

조상희(씩씩한 승주 아빠)

먼저, 이책은 공동육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사회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던 저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우리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열어주어야 할까? 란 고민에서 조금은 홀가분해짐을 느낍니다.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자연과 함께 세상을 느끼고, 자연과 벗하며, 인간 또한 그의 일부분임을 느끼고, 공존함을 배우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키우는 교육 이런 교육이야말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돌 하나 구슬하나만 있어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함께 뛰놀던 시절 온 동네가 나의 것 인양 누비고 다니던 나의 어린 시절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과 아이와 함께 땅따먹기 할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먹는 즐거움이 세상살이의 반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키우지 않은 먹거리 말고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단 말이 과연이 아닌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약과 방부제 이젠 미친 소까지 우리아이에게 우리 땅에서 나는 안전한 먹거리만 먹일 순 없는 것일까요,

텃밭 가꾸기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흙을 만지며 씨를 뿌리고 정성들여 가꾸고 같이 추수하여 같이 나누어먹으며, 땅의 고마움과 땀의 소중함, 함께 도와가는 협동심, 자연이 주는 소중함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배움의 터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아이가 씩씩한 어린이집에서 뛰 어노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다시금 공동육아와 함께 하게 하게된 것에 감사하며 공동육아가 이 상에 고루 전파되어 이 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닥치고 공동육아?

‘코뿔소, 쇠뜨기가 뭐야’를 읽고

김미재(씩씩한 김지오 엄마)

지오는 오롯이 내 품에서 자랐다. 세상에서 두번째쯤 바쁜 직업을 가진 지오아빠는 평일도 주말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출산·육아문맹이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덜렁 엄마가 되어 버렸다. 입덧 때문에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도 들었고, 출산 후 하혈 때문에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백일에 10kg에 육박한 지오를 안고 다니면 엄마 잡겠다고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사연 없는 아줌마가 어디 있겠냐만 몰랐기 때문에 나는 정말 씩씩했다.

멀고 먼 타국에서 지오를 낳고, 낯선 전남 장성에서 돌이 지났고, 연고 없는 경남 양산에서 두 돌을 지냈다. 어찌 낳긴 낳았는데, 키우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때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난생 처음 본’ 신생아의 요구를 알 턱이 있었겠는가? 밀폐된 아파트에서 말 못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지내는 일도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립된 공간과 관계 속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느끼게 되는 과민증과도 같았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육아는 갈수록 태산이었다. 하긴 한치 앞을 모르니 그 당시에도 힘들고 그 후로도 계속 새로운 고민이 찾아

오는 악순환이었던 것이다.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남겨진 어렵고 힘든 육아에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집근처 어린이집에 지오를 등원시켰다.

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처럼 비상식적인 어린이집에 그다지 오래 보낼 수는 없었다. 보내면서 상당부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지오를 그만 보내기로 결정하고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당장에야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 상식이 통하는 어린이집은 세상에 없는 건지 내가 욕심이 큰 건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어쩌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육아 방식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이사가 취미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또 이사를 해야 했고 늘 겪는 우여곡절 끝에 시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원아모집 광고에 시지에 이름난 어린이집들을 차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몇 군데 돌다보면 어디 보내야 할지 감이 온다던 어느 엄마의 말은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 여기나 저기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다 우연히 생협 소식지를 보았다. 식품안전 급식위원회에서 씩씩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교육한 것을 보게 되었고, 공동육아하는 곳임을 알게 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해 우리 가정이 합격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에 대해 잘 모르고 조합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곳은 일단 상식이 통하는 곳인 것 같아 그동안 지오 어린이집 문제로 앓던 내 편두통은 한순간에 달아났다.

씩씩한 어린이집에서 만난 아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아 보였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을 이토록 이곳에서 일하게 만들며 그들만의 대단한 신념을 가지게 만든 것인지 정말 궁금했다. 그것은 ‘코빨소, 쇠뜨기가 뭐야?’를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오를 응원시키면서 조금이나마 몸으로 또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

별명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썩썩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권위적이지 않았다.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 같았고 아이들을 자신들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어른들이 좌지우지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였다. 새로 온 교사의 별명을 지을 때에도 터전 교사들은 아이들의 소소한 이야기조차 놓치는 법이 없었다.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세시 풍속과 절기 같은 전통 문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매일 매일 나들이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 친화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썩썩하게 ‘잘’ 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자연과 관계 맺으며 맘껏 뛰놀면서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아는 어른, 환경을 지켜 나가고 보존하려고 애쓰는 어른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아이들의 삶에 평생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먹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지오 이유식 시기부터 전자레인지 한번 사용하지 않고 중탕을 고집하는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별난 엄마였다. 아무리 육아에 대해 전무해도 아이가 ‘잘’ 먹어야 안 아프고 ‘잘’ 논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썩썩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다. 공동육아 책 한권 읽고 고작 이틀 등원시킨 신규 생각에는 아마들을 열정적이게 만든 답은 ‘상생’이라 생각한다. 나 혼자서는 절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은 아이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데 충실해야 이 조합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어린 신규가 감히 말하건데, 조합을 이루어나가는 구성원들의 긴밀하고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거울이 될 것이다. 글을 이쯤 쓰고 나니 한 달에 몇 번 청소하고 회의하고 새벽 한 두시까지 총회하는 것쯤이야 싶다.

지오가 만난 첫 세상이 부모라면 지오가 다음으로 만난 또 다른 세상이 공동육아여서 참으로 다행이다. 육아 문맹인 나보다 더 넓은 지평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앞으로 내가 느낄 함께 아이 키우는 즐거움이 참으로 기대된다. 

육아의 주인공으로..

‘코빨소, 쇠뜨기가 뭐야’를 읽고

김종현 (씩씩한 김지오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장난스런 질문을 아빠가 된 나도 지오에게 던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아빠, 엄마, 다 좋아~!’ 라며 웃으며 대답한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임기응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엄마보다 항상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

휴일도 없이 항상 바쁘게 일하며 육아에는 뒷전이었던 내 일상을 돌아보면, 아빠를 머릿속에서 빼놓지 않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엄마보다 먼저라니. 고마운 일이다. 지오를 처음 만난 날,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던 핏덩이를 보며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자고 다짐했지만 난 준비되지 않은 아빠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이가 느끼는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은 엄마와 함께였고, 아빠는 가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불청객 정도라고 하면 맞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항상 엄마의 몫이었고, 난 그저 고민하는 척만 했던 것 같다.

어린이집을 수없이 알아볼 때도, 아이 떼 거리를 고민할 때도 늘 3인칭이었던 나를 주인공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와이프 손에 이끌려 보게 된 씩씩한 어린이집 면접이다. 처

음으로 공동육아라는 것에 대해 들었고, 지금도 생소하지만 보통의 어린이집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 아마들의 열정과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모습은 작은 충격이었다. 우리아이들이 터전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연을 벗삼아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일 것이다.

어린이집 전체 모듬에 잠시 참여했는데, 나들이 갈 장소를 정하는 사소한 것도 교사나 아이들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신선했었다. 아이들이 단지 양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참여는 공동육아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다. 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오늘의 현실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세상을 조금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과 함께.

아직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본 공동육아 이야기의 일부분은 내가, 아니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놀이의 방식이라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날 처럼 딱히 놀거리가 없던 어린 시절 나도 친구들과 앞산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여름이 되면 물잠자리, 개구

리, 가재를 잡으러 온 산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 늦게 집에 들어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괜히 잡아온 곤충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몰래 집 앞에 고이 모셔 두기도 했었다.

휴일이면 온종일 동네친구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 총놀이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늘날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터전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사실 나는 고향이 대구라 흔히 말하는 시골집이 없었다. 늘 방학이면 시골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온 친구들의 얘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원두막에서 고구마·감자를 익혀먹고, 포도·사과 같은 과일을 직접 따먹고 소를 키우는 일은 나에게 TV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보는 모습이었다.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었을까? 학교 앞에서 100원에 파는 병아리를 몇 마리 사와 닭이 될 때까지 키워본다며 수도 없이 사보았고, 한 봉지에 10마리정도 들어 있는 올챙이를 PET병으로 만든 작은 수조에 담아

개구리가 될 때까지 키우기도 했다. 행여 죽지는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여다 보며 살펴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을 통해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직접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책을 통해 보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 않은가? 공동육아를 통해 자연과 함께 커가고 내가 느꼈던 생명에 대한 경외를 지오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내가 아마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금껏 길들여진 세상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육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이곳을 떠날 때쯤 느끼게 될지 모를 성취감이다. 이제 막 주인공 된 초보아빠, 파이팅! 

아이는 꼭 부모가 키워야 하나?

‘함께 크는 우리 아이’를 읽고

이태원(씩씩한 이수하 아빠)

참으로 오랜만에 책을 접하고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은 멋지고

습관화 되지 않아서 인지 조금은 낯설은 감이 있습니다. .

첫째 준협이, 둘째 준서, 셋째 수하 아이 셋을 접하면서 참으로 많은 상황을 접하고, 또한 고민도 했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은 미련이 남고, 또한 이길이 올바른 방법 이고 최선의 길인가 항상 의문 중 입니다.

책을 읽고서 아이와 엄마 그리고 선생님, 또한 아이들의 관계에서 누구나가 한번쯤 생각해보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는 꼭 부모가 키워야 하나?

자녀 양육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의 심각한 과제와 고민이 되었고,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또한 희생을 하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걸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제는 양육/보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는 당연히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아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것과,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누구보다 양육/보육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일 겁니다.

이미 기존의 규범/준칙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조련된 부모에게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잠재된 아이들에게 과연 그 기회부여가 정상적인지 고민해 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거북이는

모범과 성실의 교본이 되고, 토끼는 게을러서 나쁘고, 닭지 말아야 될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 한다면, 혹여 아이 각자 갖고있는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아이 각자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각각의 색깔은 얼마나 다양하고 의미가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과정에서 알수 없는 아이의 색깔과 가능성을 배워 나가는데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경쟁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한 부모에게는 아이가 교육터이고, 배움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힐 생각 입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보육이 사회 공동체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현실적인 거리감과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공동육아의 실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크다보면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색깔을 아이를 통해 알게된 부모와. 또한 그 아이들에 의해서 열린 공동체, 열린 삶의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한 발 더 다가 설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앞서 터전생활을 경험해 보았고, 지금 셋째 덕분에 새로이 터전생활을 시작하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게 크게 없다는 것에 항상 죄책감이 앞섭니다.

그래도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에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고민만 하다가 글을 마칩니다. 

씩씩한..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읽고

홍대식(씩씩한 소장,서연 아빠)

독후감은 써야 한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설명하라면 우물쭈물 횡설수설하기 일쑤다. 선배들의 ‘추천도서 읽고 독후감 제출’ 숙제는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었다. 막연히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단어들을 감상문으로 풀어내려니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이렇게 고민하고 정리하며 책을 읽은 적이 언제였던가, 귀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초중학교를 거치며 올곧이 지킨 숙제 안하기 버릇을 우리아이들이 고쳐주는구나 싶다.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은 논문다웠다.

공동육아의 시작부터 짙으며 시작된 이 책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대화 한마디까지 섬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실험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들을 배울 수 있었다. 좋았다.

지금 우리아이들만 할 때 내게는 두 명의 불알친구가 있었다. 몇 살 때부터 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대부분의 시골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며 자랐다. 냇가에서 물장구치고 들로 산으로 개구리 잡으며 다니는 그런 생활들.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제는 일 년에 한번 만나기도 어렵지만 간혹 만나서 그 시절을 추억하면 그저 실실 웃음만 난다.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어릴적 경험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렵다. 씩한 어린이집에서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시절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

편집후기

오현석 [은준아빠]

홍보소위 여러분! 무사히 소식지 낼 수 있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파이팅!!!

이윽희 [지호엄마]

날씨는 조금 차갑지만 벌써 봄기운이 만연하네요~ 다가오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김덕춘 [재홍재욱엄마]

대단한 2012년인가보다. 모두 힘들어서 힘들어오는 멋진 한해이기를 바란다. 소식지 편집하며 너무나 급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것 같아 조마 조마하나 어쩔 수가 없네요. 많이들 이해해주시길 ♥♥♥

신미정 [동현엄마]

새로 해바라기와 인연을 맺게 된 새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3월은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의 시작, 새 학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3월에 못다 세운 새해 계획을 완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86호

- 발행일 2012년 2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